

리아호나



구주의 거룩한
희생을 이해함, 34쪽

연약함이 죄가 아닌 이유, 20쪽

성공적인 가정의 밤을 하는
방법, 10쪽 및 80쪽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누가복음 15:4~5



7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용기를 구하는 몬슨 회장의 외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간사함이나
위선이 없음

특집 기사

- 14 여성의 영적인 영향력
스탈라 워캠프 버틀러
여성 여러분의 영향은 눈에 보이는
영역 너머에까지 미칩니다.
- 20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니다
웬디 올리히
죄와 연약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우고, 연약함을 강점으로 만드는
법을 익히십시오.
- 26 정결한 종교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장로
이타적인 봉사에 이르는 세 단계를
읽어 본다.
- 30 “늘 함께하소서”
조나단 에이치 웨스트버
찬송가를 부르자 한국인 구도자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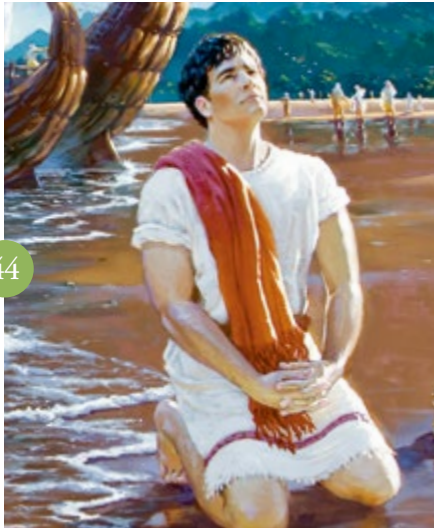
- 34 구주의 이타적이고 거룩한 희생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와
죄책감이라는 영적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
- 80 가정의 밤 100주년
1915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과
보좌들은 그 형식과 목표,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설명하며 가정의 밤을
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교회 본부 기사

- 8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신앙의 힘
엠버 바로우 달
- 1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가정의 밤—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 12 복음 고전: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
- 40 후기 성도의 소리

표지
앞표지 삽화: 엠마오로 가는 길, 리즈 레몬 스윈들,
복사를 금지함, 안쪽 앞표지 사진: 짐 제프리, 안쪽
뒤표지 사진 삽화: 코디 벨

청년 성인



44

44 신앙으로 나아가

앤소니 디 퍼킨스 장르

아주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 해야 할 일을 니파이에게서 배우십시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여러분은 촛불을 어디서 밝히나요?

청소년

49 포스터: 주님을 찾으라

50 조셉 덕분에 테드 반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있었기에 여러분의 삶은 최소 여섯 가지 면에서 달라졌다.

53 살아 있는 선지자 에즈라 테프트 벤스 회장

아담? 니파이? 모세?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면 여러분은 놀랄 수도 있습니다.

54 순종에 관한 구주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정하신 아홉 가지 방법.

58 우리들 공간

60 지혜로워지는 방법

닐 엘 앤더슨 장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61 해답을 찾아서

62 한 우리와 한 목자

목자가 하는 세세한 일들을 이해하게 되면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

64 질의응답

어떻게 하면 감독님께 저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54

어린이



75

66 여러분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샬럿 메이 세퍼드
엘리는 누가 자기의 진짜 영웅인지를 반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겁이 났다.

68 기도와 대성당

맥켈 조지
영국에 있는 대성당에 들렀을 때, 다니는 기도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70 특별한 증인:

순종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러셀 엠 넬슨 장르

71 빛나는 아이디어

72 경전 속으로

나병환자를 낫게 해 주신 예수님
에린 샌더슨

74 경전 인물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75 올바른 길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르
올바른 길을 따라가면 변화가 일어난다.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구주 나 사랑하시네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2015년 4월호 제52권, 제4호
리아호나 12564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트오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머빈 비 아놀드, 크리스토퍼 골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조셉 더블유 시타티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담당자: 리사 캐롤리나 로페즈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라톤, 로리 플라, 게렛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민디 앤 래빗,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켈 핀보로우, 리차드 엠 톰스, 폴 벤덴버그, 머러시 윌슨
편집 인력: 엘리사 하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넷슨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캄플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윙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티브 엠 우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너호스트

지역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솔프 버릿지, 줄리 버넷, 케이티 영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넬슨, 가일 타데 라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찬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약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89호, 제52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d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면 바랍니다. Liahona,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바스카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전원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d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pril 2015 Vol. 39 No. 4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늘 함께하소서**”, 30쪽: 박미정 자매님이 침례받기로 결심하는 데 “늘 함께하소서”라는 찬송가 가사가 도움이 되었듯이, 찬송가는 우리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고 그 경험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본다. 식구마다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각 찬송가를 가족과 함께 부른다. (이 활동은 몇 주에 걸쳐서 진행해도 좋다.)

“**기도와 대성당**”, 68쪽: 이 이야기를 읽은 후,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다른 여러 교회에 대해 언급하거나 사진(또는 그림)을 내보이고 가족과 함께 다음 질문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 교회와 다른 종교 간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심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말씀한 “진리와 관용 사이에 균형 맞추기”(리아호나, 2013년 2월호, 28~35쪽) 기사의 활용을 고려해 본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각 숫자는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정의 밤, 10, 80
- 가족, 10, 50
- 개종, 30
- 결정, 44, 60, 75
- 계명, 70, 75
- 교회 지도자들, 53, 64
- 금식, 30
- 기도, 68
- 모범, 14, 66
- 봉사, 26, 42
- 부활, 12, 49
- 비통, 30, 41
- 사랑, 76

- 사망, 30, 41
- 사탄, 34, 61
- 선교 사업, 30, 40
- 선지자, 53
- 선택의지, 4, 20, 44
- 성신, 30, 41, 42, 43, 44, 50, 58
- 성전 사업, 30, 43
- 속죄, 20, 34, 49
- 순종, 44, 54, 58
- 신권, 50
- 신성한 본질, 58
- 신앙, 8, 20, 44
- 신약전서, 54, 62, 72, 74

- 여성, 14
- 예수 그리스도, 7, 8, 12, 20, 26, 34, 49, 54, 62, 66, 72, 74, 76
- 외설물, 34
- 용기, 4
- 용서, 20, 34
- 음악, 30, 40
- 조셉 스미스, 12, 50
- 죄, 20, 34
- 죄책감, 20, 34
- 치유, 8, 72, 74
- 회개, 34, 64
- 회복, 50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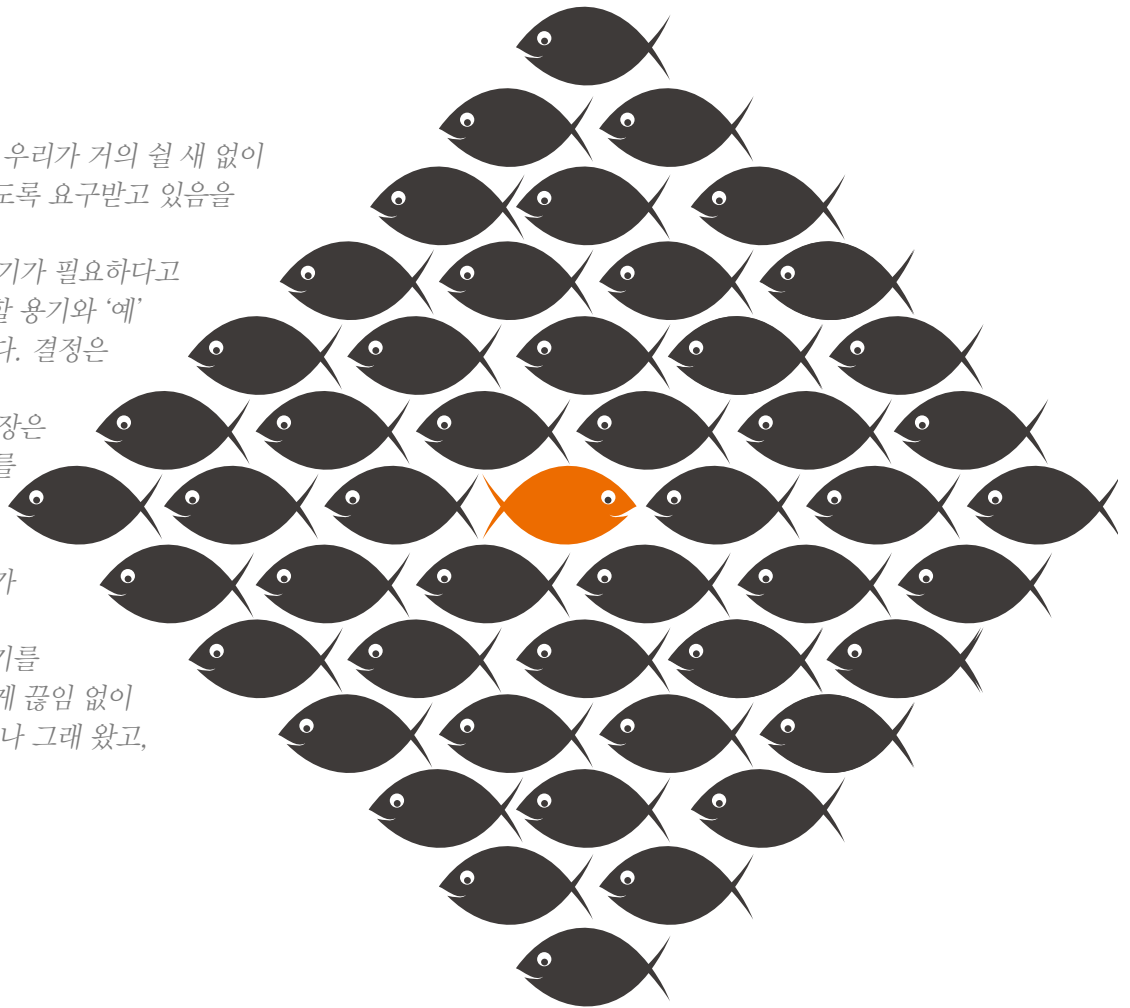
를
구하는 몬슨 회장의 외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가 거의 실 새 없이
이런저런 종류의 선택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현명한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와 ‘예’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정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다음 발췌문에서 몬슨 회장은
후기 성도들에게 진리와 의를
지키고 믿음을 수호하며,
영원한 가치와 원리를
거부하는 세상에 맞설 용기가
필요함을 일깨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용기를
구하는 외침이 우리 각자에게 끊임 없이
들려옵니다. 그 외침은 언제나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기에 미소 지어 주심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비웃음을 경험하고, 반대와 마주칩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저버릴 수 있는 용기, 원리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 지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용기에 미소 지어 주십니다. 기꺼이 남자답게 죽겠다는 결심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겠다는 결심이 수반될 때 용기는 생명력 있고 매력적인 덕성이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려 노력하고 전진할 때, 분명히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서 위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³

용감하게 이겨 냄

“견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용감하게 이겨 내는 것이라는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믿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도 자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필멸의 삶을 떠날 때까지 견디려면 단연코 용기가 필요합니다.”⁴

진리를 지키려는 용기를 지님

“진리와 의를 확고히 지키려는 용기를 지나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흐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과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수호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져 있다면, 복음과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⁵

우리는 영적 및 도덕적 용기가 필요함

“[오늘날] 텔레비전과 영화 그리고 다른 대중 매체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이고 간직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교리를 지키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어떤 외부의 힘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곳곳에 난무하는 악에 맞설 수 있는 영적 및 도덕적 용기가 필요합니다.”⁶

우리가 언제나 용감할 수 있기를 소망함

“하루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에 관해 소수 의견에 속하거나 심지어 홀로 서 있는 상황에도 처할 것입니다. ……

우리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고 용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홀로 서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곁에 설 때에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임을 아는 지식으로 힘을 얻어 용감하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⁷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한 주 동안 가정, 직장, 학교, 또는 교회에서 일어날 상황 중 용감하게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은 두려움에 직면하거나 힘든 어떤 일을 견디거나 믿음을 지키거나 복음 원리를 더 온전하게 순종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그들의 생각을 나누거나 기록해 보라고 권유한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선택에 관한 세 가지 원리”,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68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를 구하는 외침”,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54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강하고 담대하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68~69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믿고, 순종하며, 견디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29쪽.
5.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를 가지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26쪽.
6.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8~119쪽.
7.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0, 67쪽.

새라와 같은 사람

멕킨지 밀러

나는 “너는 왜 커피를 안 마셔?”와 같이 간단한 질문에 답할 때에도 그냥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다. 전에는 “맛이 너무 써”라든가 “별로 맛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댔었다.

나는 왜 당황했을까? 내 믿음을 옹호하는 일에 왜 그렇게 겁을 냈을까?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뭘 두려워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믿음을 감추고 핑계 대는 것을 그만둔 순간은 분명히 기억한다.

고등학교 시절, 하루는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내가 봐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겠다고 하셨다. 다들 흥분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같은 반 친구인 새라가 손을 들고 밖으로 나가도 되냐고 질문했다.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새라는 “저는 몰몬이기 때문에 불경한

프로그램은 보지 않거든요.”라고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

반 전체가 보는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 한 새라의 용기는 정말 놀라웠다. 새라 덕분에 나도 일어섰고,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밖에서 그 프로그램 시청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영원한 변화를 겪었다. 나는 그런 주제를 회피하는 대신 내 믿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자신감이 커졌고, 교회 활동과 학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새라의 모범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직접 그 아이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 친구의 자신감 넘치는 모범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훌륭하고 성스러운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님을 안다. 나도 모범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새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고 싶다.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어린이

경전에서 용감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모든 회장님은 용감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는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각각의 이름 옆에 있는 성구를 읽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용감하게 자신이 옳다고 아는 것을 지켰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을 빈 공간에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조셉 스미스(조셉 스미스—역사 1:11~17)

다니엘(다니엘 6:7, 10~23)

레이먼인 사무엘(힐라만서 13:2~4; 16:1~7)

에스더(에스더 4:5~14; 5:1~8; 7:1~6)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누구와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간사함이나 위선이 없음

다음은 구주의 속성을 특징으로 다루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사함이나 위선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분의 모범을 충실히 따르고자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틴(1917~2008)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간사하게 속인다는 것은 기만하거나 …… 탈선시키는 것입니다. ……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매일 온전한 의로움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순수하고, 생각이 정직하며, 순수한 동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 저는 교회 회원들에게서 간사함이 없어야 할 필요성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욱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미덕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¹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위선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중에는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아는 만큼 그리스도와



같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점과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도움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염원합니다.”²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³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자 애써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더 순수해질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마태복음 5:8)

보충 성구

시편 32:2; 야고보서 3:17; 베드로전서 2:1~2, 22

주

1. 조셉 비 위스틴, “간사함이 없나니”, *리아호나*, 1988년 6월호, 87쪽.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2.1.

생각해 볼 점

우리는 어린아이들로부터 간사함이 없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경전 안내서, “간사함” 참조)



신앙, 가족, 구제

경전에서

어린이들은 간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가복음 10:14, 16).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미대륙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성역을 베푸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셨고 “그들의 어린이들을 데려와 그를 둘러 땅에 내려놓는지라,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고 ……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시니, 우리가 이를 증거하니라. 또 그들의 어린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

이에 그들이 주목하여 보려 할새 그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더니, …… 또 천사들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매, 저희가 내려와 그 어린 자들을 둘러싸니 …… 천사들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제3니파이 17:12, 21, 24)

신앙의 힘

엠버 바로우 달

우리가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으시는 셈이 되는 것이다.

대학 시절, 나는 시험을 보던 중에 목에 통증을 느꼈다. 시험의 긴장감이 사라진 후에도 목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의사와 치료사들과 상의한 후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으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 1년 동안 나는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그뿐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으며 신권 축복을 요청했다. 충분한 신앙이 있으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마태복음 9:29) 병든 자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와 나병환자들을 고치시지 않았는가! 예수께서 지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듯이, 나를 낫게 해 주실 권능이 예수께 있으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따라서 나는 단지 내 신앙이 부족해서 병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서 두 배로 더 노력했다. 하지만 물리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공부하고 믿었으나 고통은 여전했다.

경전에는 신앙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르침이 나오지만(마태복음 17:20 참조), 나는 이런 사소한 고통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했다. 내 신앙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던 말인가? 결국 나는 겸허히 상황을 받아들이며

불편함에 대처할 방안을 찾았고, 신앙과 치유에 관한 완전한 이해는 다음으로 미루는 데 만족하기로 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나는 첫 임신 때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며 여러 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친구 에린은 둘째를 갖고 싶었으나 첫 임신 때 겪었던 것과 같은 불편을 견뎌 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에린은 기도와 금식을 계속했고, 그 결과 두 번째 임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고통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진실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편

46:10)라는 성구가 떠올랐다. 환난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는 것을 배웠던 내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며, 나는 에린에게 계속 신앙을 지니되 그 신앙이 다음 임신 때 입덧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해 주었다.

나는 신앙의 원리를 계속 공부하다가 신앙에 관한 엘마의 설교를 읽게 되었다.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다.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엘마서 32:21)

이 성구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임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엘마는 신앙이 참된 원리에 대한 소망이라고



시련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딛고 일어설 시련, 성취할 책임, 우리 근육을 단련시킬 일, 우리 영혼을 시험할 슬픔을 주시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을 시험할 유혹,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질병, 불멸과 영광을 얻게 될 죽음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아픈 사람들이 모두 다 낫는다면, 의로운 사람들이 모두 보호받고 간악한 이들이 모두 멸망한다면, 아버지의 전체 계획은 무효가 되고 복음의 기본 원리인 선택의지는 끝나 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신앙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15쪽.*



가르친다.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목을 고쳐 주시리라는, 또는 에린에게 입덧 없는 임신을 허락하시리라는 신앙은 진정한 원리에 입각한 신앙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께 치유할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과, 그분은 우리를 염려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잘 견뎌 내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지닐 수 있다.

주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을 것”(이노스서 1:15)이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이 약속과 관련된 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라는 권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Bible Dictionary(영어 성경 사전)에는 기도에 관한 이런 가르침이 나온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가 될 때, 곧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요한복음 15:7)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을 간구한다. 어떤 기도들은 응답되지 않는데 이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신앙으로 간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소망에 따라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바라신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포함될 때가 있다.(베드로전서 1:7 참조) 우리가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경험을 못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으시는 셈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순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소망을 그분의 소망과 일치시키고 우리가 그분께 철저히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우리] 영혼의 구원”(베드로전서 1:9)을 받기에 합당해질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오리건에 산다.

가정의 밤—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던 가정의 밤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강화할 수 있다.

한 아버지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나머지 가족도 자신과 비슷하게 언짢은 기분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본다. 월요일 밤인데, 가정의 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두 사람은 온 가족을 불러모아 찬송가를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한다. 부부는 가족들에게 각각 불을 밝힐 조그만 초를 주고는 근래에 영감을 주었던 어떤 것에 대해 들려준다. 어두운 방에서 빛나는 촛불은 영감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간증을 나누자, 감미로운 평안과 사랑의 느낌이 가정에 스며든다. 가족은 가정의 밤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친다.

가정의 밤이 교회 프로그램이 된 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1915년 4월, 제일회장단은 회원들에게 가족 기도와 음악, 복음 학습, 이야기와 활동을 위해 매주 하루 저녁을 따로 비워 둘 것을 당부했다.(80쪽의 제일회장단 서한 발췌문 참조) 선지자들은 가족의 밤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준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하늘로부터 영감받은 이 프로그램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 각 구성원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고 도처에 있는 유혹에 저항하도록 도와줍니다.”¹

매주 시간을 내서 가정의 밤을 할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가정의 밤은 ……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² 기혼이든 독신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가족을 강화하고 복음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따로 낼 수 있다.

나는 시간을 낼 수 있다. 교회는 월요일 저녁 시간에는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써 모범을 보인다.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다는 것을 주님과 가족에게 보여 줄 수 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지내고 있다면, “온라인 가정의 밤”을 하고 가족들이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시도해 본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직장 근처에서 휴식 시간을 이용해 “주차장 가정의 밤”을 한다. 이혼한 한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월요일마다 “편지 가정의 밤”을 했다.³ 장애물을 더 큰 창의성을 발휘해 보는 동기로 삼아 보자.

나는 이번 주에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의 필요 사항과 여건에 맞게 가정의 밤을 구성할 수 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 기도로 시작하고 끝낸다.
- 찬송가와 초등회 노래를 포함한 음악을 활용한다.
- 경전과 현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배운다.
- 신체 활동과 봉사 프로젝트, 복음 중심 활동을 매주 바꿔가며 다양한 시간을 보낸다.
- 즐긴다! 놀이를 하거나 다과를 준비한다.
- 꾸준히 한다. 월요일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다른 날을 찾아본다.

나는 축복을 원한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가정의 밤에 참여한다면 가정에서





사랑과 순종심이
커지고 청소년의 마음속에 신앙이
발전하는 등 큰 축복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족은 “자신들 주위에 있는
악의 영향력 및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⁴

여러분이 하는 가정의 밤이 매번
완벽한 경험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노력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은 강화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가정의 밤은 우리 영혼이라는
그림에 겨우 한 획을 찍는 붓 자국입니다.
대단히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한 가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 물감 자국이 서로를
보완하며 인상적인 걸작을 만들어 내듯,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을 하는 우리의
한결같은 중대한 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⁵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9쪽.
2. 엘 톰 페리, “나는 …… 배웠고”,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38쪽.
3. “Family Home Evening: Any Size, Any Situation,” *Ensign*, Dec. 2001, 42.
4. Heber J. Grant,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75), 6:19.
5.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9쪽.

가장 높은 우선순위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훈계, 건전한 가족 활동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합니다.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한 다른 요구나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오직 부모와 가족들만이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지명된 이 의무들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
제9대 교회 회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1873년 9월 8일에 태어났다. 1906년 4월 9일에 32세의 나이로

사도에 성임되었으며, 1951년 4월 9일에 제 9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다. 다음은 1966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전체 원문을 보려면 1966년 4월 Conference Report, 55~59쪽을 참조한다.

기적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서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할진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시대의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불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직 인간이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만 기적입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인생의 일정한 법칙이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취하시어 영화롭고 부활한 존재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장정(사람)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라는 오래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부활의 증인들

그리스도를 잘 알던 제자들은 그분이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절대적으로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살아나신 구속주가 육체를 입고 임하신 것을 손으로 만져 보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열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택하기 위해 만났을 때 선임 사도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사도행전 1:21~22) ……

또 다른 때에 베드로는 적대자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 이 예수님을 하나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사도행전

2:22, 32) ……

추가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부활을 문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부여된 지상에서의 거룩한 사명의 완성으로서 부활을 받아들였던 베드로, 바울, 야고보 및 초기의 모든 사도와 더불어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1800년이 지난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조셉 스미스—역사 1: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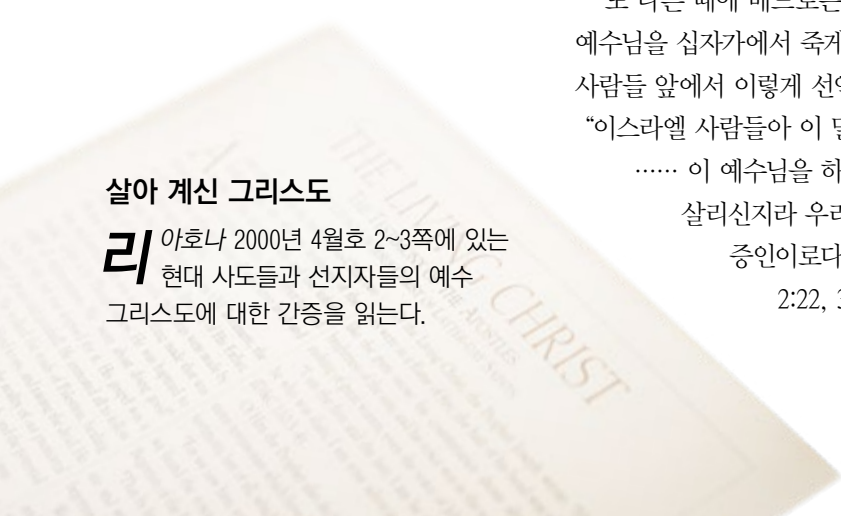
만일 조셉 스미스의 증언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신을 증언하는 것처럼 소용이 없었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도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 조셉 스미스에게는 그의 간증을 확인해 준 다른 증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모로나이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 증언의 참됨을 알려 주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또한 조셉 스미스가 받은 영광스러운 시현이 참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

리야호나 2000년 4월호 2~3쪽에 있는 현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읽는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속주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그분을 단지 위대한 개혁자, 이상적인 교사 또는 한 온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

진실로 거듭남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진심으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성품에서 변화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그것에 부여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구주를 가까이하는 이러한 느낌,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가깝다는 이러한 느낌에서 오는, 사람을 고양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참으로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저의 구속주임을 아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인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는 죽음이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앓아갈 때, 다음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희망과 거룩한 확신으로 비통한 마음에 위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6; 마가복음 16:6 참조]

제 온 영혼을 다해 저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구속주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소재목을 변경하고, 대문자와 구두점 사용을 표준화함.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 ……

고대 사도들이 전한 의심할 여지 없는 증언, 즉 부활이 있고 그후 몇 년 동안 기록된 간증을 고려해 보고, 또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시대의 가장 놀라운 시현을 고려해 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도 그분을 거부하고 인간의 불멸을 의심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며, 인간 생활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

만일 사람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어둡고 침침한 무덤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한다면,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여성 의



영적인 영향력

“우리는 교회의 여성들에게 의를 위해 함께 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지닌 영적인 힘의 영향력을 알고 있는가?

스탈라 워캠프 버틀러

교회의 훌륭하고 겸손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삶이 멀리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현세적인 봉사의 본을 보이고, 영적인 힘을 유산으로 남겨 주었다. 그런 여성 중 한 분이 바로 나의 할머니인 웨리 피터슨이다. 할머니는 평생 눈에 띄지 않는 부름에 충실히 봉사하셨다. 장기가 무엇이나고 누군가 묻는다면 할머니는 세상에 내세울 만한 재능은 별로 없다고 대답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의 생애를 알게 되면서 할머니의 영적인 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할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의 부모님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혼하셨다. 그 바람에 할머니는 늘 밖에서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 플로렌스 슬하에서 자라셨다. 나에겐 증조모가 되시는 플로렌스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그보다 더 방치되었는데, 나의 고조모인 조지아 할머니가 세속적인 삶을 사시는 동안 기숙 학교에서 성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웨리 할머니의 성장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할머니의 증조모인 엘리자베스의 가족과, 또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충실히 참석하며 복음 안에서 늘 활동적으로 지내셨다. 웨리 할머니는 증조모의 가정에서 자신이 바라는 가족상을 발견했다.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셨으나 어떤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셨기에 그분의 미래의 가정은 그와는 다르게 꾸리겠다고 결심하셨다.

할머니의 남편, 즉 우리 델 할아버지는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간증을 얻으려면 그것을 원해야 한단다. 네 할머니는 늘 간증을 원했지.” 두 분은 신혼 시절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굳건한 가정을 세우겠다는 결심이 남달랐다. 델 할아버지의 직장 일정 때문에 신혼 첫해에는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셨지만, 초등학교 부름을 받게 되면서 웨리 할머니가 교회에 먼저 나오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케틀린 피터슨, 복사를 금지함

곧이어 델 할아버지도 집사 정원회 고문으로 부름받으면서 할머니의 뒤를 따르셨다. 그 이후로 두 분은 교회에서 늘 활동적이고 강한 회원으로 생활하셨다. 기꺼이 봉사하고 강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할머니의 결심 덕분에 우리 어머니 역시 강한 여성이 되었으며, 어머니의 모범은 내 인생, 특히 가정을 꾸리게 된 지금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주위 사람의 삶에 깊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조셉 스미스는 우리의 역할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뿐 아니라,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¹이라고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여성들에게 그분의 제자가 되고 영적으로 강해지라고 명하셨다. 우리의 영적인 힘과 영향력은 구원 사업을 진척시키는 필수 요소이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영적으로 강화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지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까지 우리의 신앙과 의로움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님은 이렇게 저술하셨다. “세계 최대의 여성 옹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² 예컨대, 예수께서 신약전서에 나오는 그분의 두 여제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해 보자. 내 왕국에 속한 딸들에는 이런 설명이 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는 내용이 나온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필요한 현세적인 일을 돌봐 드렸고,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였다.

여성들에게는 현세적인 봉사만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그 시대에 구주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여성들도 그분의 사업에서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두 자매에게 그분의 제자가 되어 결코 빼앗기지 않을 ‘이 좋은 편인 구원에 동참하라고 권유하셨다.’³

우리는 마르다처럼 여성의 주된 역할을 다른 사람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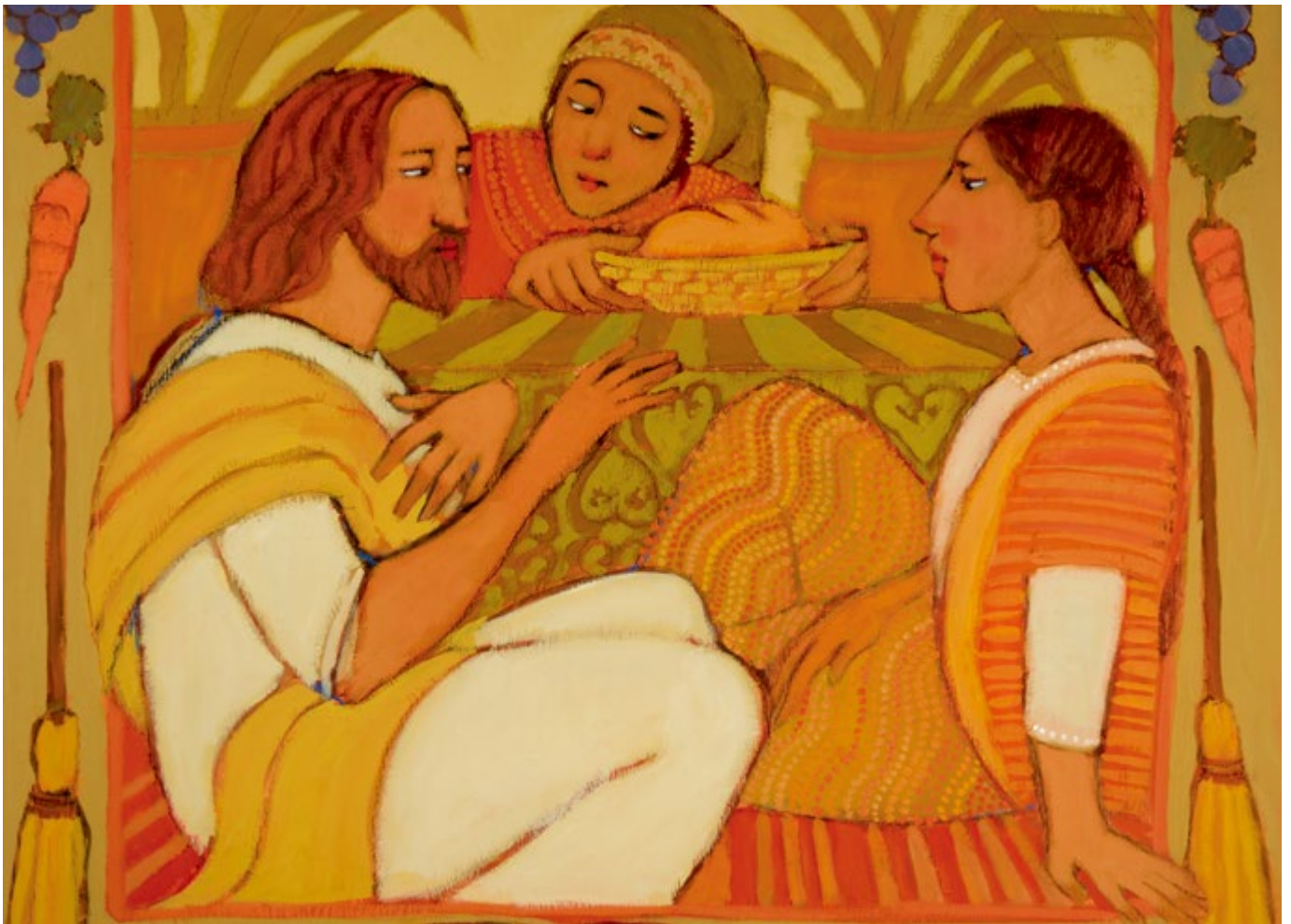
4세대: 손녀 플로렌스를 안고 있는 엘리자베스(왼쪽). 부모와 함께 유타로 온 애니(가운데)는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이다. 조지아(오른쪽)는 엘리자베스의 딸이지만, 조지아와 딸 플로렌스는 교회를 떠났다. 증손녀 셰리와 셰리의 후손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도운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엘리자베스였다.

음식 조리과 바느질, 청소 같은 현세적인 봉사로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 이런 봉사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주님께는 바느질과 음식 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자매들이 필요하다. 주님은 삶에 신앙과 의로움, 자애가 빛을 발하는, 영적인 힘을 지닌 여성들을 필요로 하신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 행하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키워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힘을 보태라고 외치신다. 본부 상호부조회의 린다

케이 버튼 회장님은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었는지가 바로 여러분이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으로 보내진 이유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말로 핀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⁴

주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며, 우리 각자가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자매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할 선을 위한 영적인 군대가 되기에, 너무 재능이 적다거나 없는 자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성스러운 잠재력을 지닌 우리는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책임이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과 성약을 맺은 이 교회의 모든 자매들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돕고, 세상의 여성들을 인도하고,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⁵

우리의 가장 큰 의무, 즉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할 선택을 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비범한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한두 사람의 삶에, 심지어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일들과 가장 작은 일들이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여성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 “천사들의 심부름 자매가 받으니 우리들 자매의 은사라네.”⁶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두 여성의 영적인 힘이 어떻게 자신의 생애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야기하셨다.

“어린 시절, 제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아니셨고 어머니는 저활동 회원이셨습니다. …… 제 여덟 번째 생일이 몇 달 지난 뒤에 위틀 할머니는 그 먼 거리를 가로질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제 형이 침례를 받지 않은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일에 대해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구주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여성들도 그분의
사업에서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두
자매에게 그분의
제자가 되어
구원에 동참하라고
권유하셨다.”

하여튼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는 형과 저를 공원으로 데려가셔서 침례를 받고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세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고, 저희 형제는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

할머니는 필요한 만큼 용기를 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형과 저를 교회 모임에 차로 태워다 주는 것이 중요함을 저희 아버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저희가 삶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⁷

스코트 장로님의 두 번째 영적인 힘의 원천은 아내 지닌이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이카, 케틀린 피터슨, 복시를 금지함

하는 동안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충실한 선교사 가정에서 자란 지닌은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밝혔다. 전에 선교 사업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스코트 장로님은 큰 영향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많은 기도 끝에 저는 감독님을 만나 선교사 지원서를 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⁸ 지닌이 장로님에게 필요했던 인도와 조언을 준 것은 맞지만, 스코트 장로님은 “지닌은 결코 자신을 위해 저에게 선교사 봉사를 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했고, 그런 다음 제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선교사로 봉사했고 나중에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지닌의 용기와 신앙에 대한 각오가 저희 두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 “천사들의 심부름 자매가 받으니 우리들 자매의 은사라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을 위해 먼저 봉사한다는 원리에 대한 그녀의 강한 신앙이 없었다면, 저는 분명 우리가 지금 누리는 행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닌은 멋지면서도 의로운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천사와 같은 여성들의 영향력은 한 젊은이가, 즉 스코트 장로님이 침례를 받고,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에서 결혼하는 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모범과 행위, 말과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싶어 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서 성약을 지키는 딸이며, 우리에게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강화하며 가르치면서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매일

구원 사업에 참여[합니다.]”¹⁰ 영에 의지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겸손하고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인도를 받고 그 일을 할 힘을 얻으며, 주님의 자녀를 그분께 데려오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됨

자신의 책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찌 할꼬”(사도행전 2:37) 하고 묻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연차 대회에서 버튼 자매님은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유하셨다. “구원 사업에 관련된 영적 ‘구인 광고’를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 사람 구함: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할] 부모
- 사람 구함: 성약의 길을 함께 걸으며 조연자가 되어 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진정한 친구, …… 자매, 고모, …… 사촌, 할머니, ……
- 사람 구함: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받은 영감에 따라 행하는 사람
- 사람 구함: 매일 작고 간단한 방법으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
- 사람 구함: 가족을 영원히 연결하는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봉사를 행할 사람
- 사람 구함: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와 회원들
- 사람 구함: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나설 구조자
- 사람 구함: 성약을 지키며 진리와 의를 수호할 사람
- 사람 구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¹¹

이런 요소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찾을 때, 주위 사람들을 돕는 우리의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벨라드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의로운 여성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이를 키우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¹² 개인 기도와 경전 읽기, 확고한 순종과 성약을 충실히 지키으로써 영적인 힘을 키우면,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너머로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딸들이 할 수 있는 선행의 양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하는 선행은 세세 영원토록 축복이 될 것입니다.”¹³

우리 할머니의 의로운 결정은 젊은 여성으로서 자신이 볼 수 있는 세대 너머로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우리 집안 여성들의 영적인 영향력은 이보다 훨씬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쉐리 할머니는 자신의 영적인 힘의 상당 부분을 증조모(나에게는 현조모) 엘리자베스를 관찰하며 얻었다. 엘리자베스 할머니가 보인 신앙과 간증의 모범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두 세대를 넘어, 증손녀인 쉐리가 만신장이가 된 가정의 방향을 틀어 교회로 돌아오도록 힘을 미쳤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이 될 때,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너머 먼 곳까지 뻗어 나갈 것이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교회의 여성들에게 의를 위해 함께 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일을 자기 가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일을 반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그 일에 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저는 이 일을 스스로 파멸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희망으로 바라봅니다.”¹⁴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면, 주위의 세상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주님의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453쪽.
2.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478쪽.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 4쪽.
4. 린다 케이 버튼, “사람 구함: 구원 사업을 서두를 힘과 마음을 지닌 사람”,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122~123쪽.
5. 엠 러셀 벨라드, “의로운 여성”, 리야호나, 2002년 12월호, 39쪽.
6. “오 시온의 자매여”, 찬송가, 198장.
7. 리차드 지 스코트, “본을 보였노라”,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32쪽.
8. 리차드 지 스코트, “본을 보였노라”, 33쪽.
9. 리차드 지 스코트, “본을 보였노라”, 33쪽.
10. 캐롤 엠 스티븐스, “우리가 기뻐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117쪽.
11. 린다 케이 버튼, “사람 구함: 구원 사업을 서두를 힘과 마음을 지닌 사람”, 124쪽.
12. 엠 러셀 벨라드, “어머니와 딸”, 리야호나, 2010년 5월호, 18쪽.
13.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216.
14. 고든 비 힝클리,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0쪽.

연약함은 죄가 아니다

웬디 올리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내가 완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 나에게서 이 문제가 사라지도록 여러 날을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선교 임지에서 내 생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착실하게 복음대로 생활했는데, 내 단점을 그렇게 많이 깨달은 적도 없었다.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도 이따금 기분이 몹시 나쁜 것은 왜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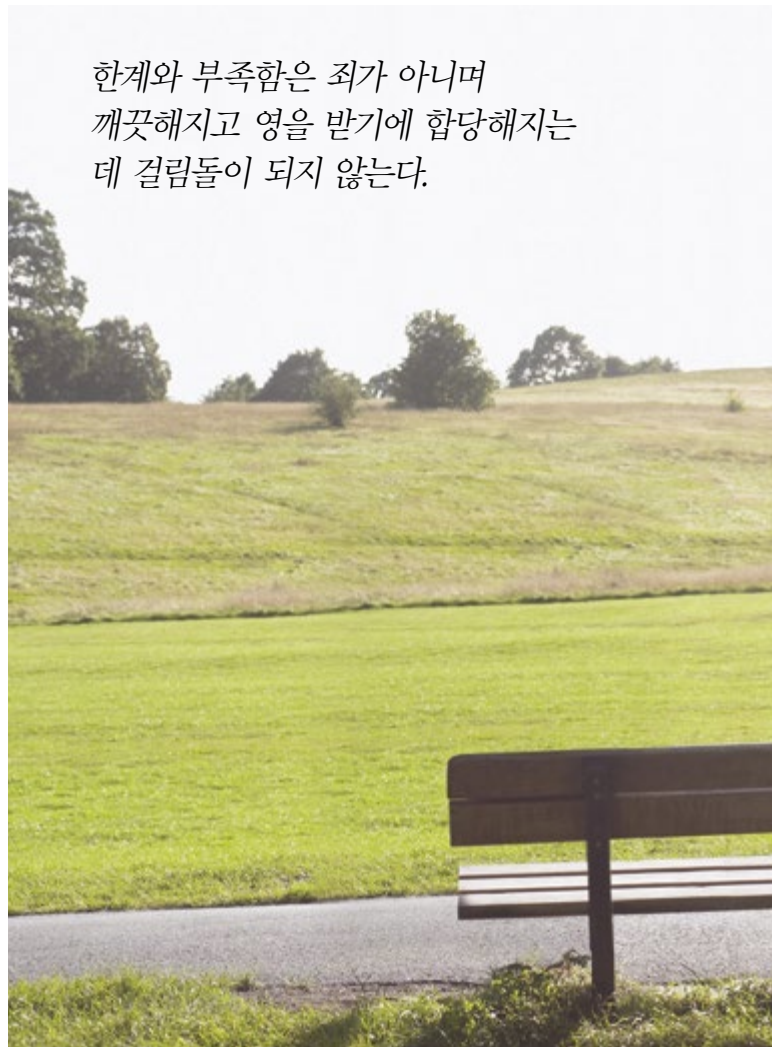
그러한 질문들을 깊이 생각할 때, 죄는 확실히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반면에 약점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죄와 약점을 구별한다

우리는 보통 죄와 약점을 우리의 영혼이라는 식물에 찍힌 크기가 다른 오점으로 생각하며 단지 잘못된 심각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죄와 약점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른 치료법이 요구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중 대부분은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죄에 익숙해 있지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거나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거역하겠다는 선택이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께 적의를 품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

한계와 부족함은 죄가 아니며
깨끗해지고 영을 받기에 합당해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죄는 확실히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반면에 약점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달리 죄가 전혀 없으셨기에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적절한 사과나 고백을 하며, 가능한 경우 보상을
하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

불결한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으므로
깨끗해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날 때처럼 무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면 여생을 요람에서
편안하게 누워 지내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지혜와 기술을 익히며,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따라 생활하고, 신성한 성품을 획득하는 등 안락한
요람 안에서는 이룰 수 없는 진보를 위해 지상에



속죄의 약속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회복하는 것,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하는 것, 부서졌으나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목적[입니다.]

.....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알고 난 이후에 지옥의 길을 따르기로 한 소수 외에, 완전한 용서의 약속에서 제외될 습관이나 중독이나 반항이나 범법이나 범죄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약속입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용서의 밝은 아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20쪽.

왔다.

인간의 약점은 이 필수 불가결한 필멸의 삶의 목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로나이가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약점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스러운 것들을 조롱할까 봐 걱정했을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를 안심시키셨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7;

또한 고린도전서 15:42~44; 고린도후서 12:7~10; 니파이후서 3:21; 야곱서 4:7 참조)

이 친숙한 성구는 심오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죄를 (사탄이 부추기는) 약점(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태로 묘사됨)과 구별해야 함을 알려 준다.

약점이란 인간에게 있는 지혜, 능력, 신성의 한계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로서 여러 육체적 결함과 성향을 지닌 채, 무력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태어났다. 연약한 다른 필멸의 인간들에게 양육되고 그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본보기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연약한 필멸의 상태에서 우리는 육체적, 정서적 질환과 굶주림, 피로를 겪는다. 또 분노, 슬픔, 두려움 등과 같은 인간의 감정을 경험한다. 우리에게는 지혜, 기술, 끈기,



죄와 약점을 구별함

	죄	약함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	인간의 한계, 결점
근원은?	사탄의 부추김을 받음	필멸성의 일부
예를 든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 하나님보다 사탄을 믿음	유혹, 감정, 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무지, 성향, 정신적 충격, 죽음 등에 쉽게 영향을 받음
예수님께서도 죄가 있는가?	아니오	예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회개	겸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극복하려는 노력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은?	용서	은혜-가능하게 하는 힘
그 결과는?	죄로부터 깨끗해짐	거룩하게 됨, 강점을 얻음

힘이 결핍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종류의 유혹을 받기 쉽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와 더불어 연약한 필멸의 상태가 되셨다.(고린도후서 13:4 참조) 그분은 필멸의 육신을 입고 무력한 유아로 태어났으며 불안정한 보호자에게 양육되셨다. 그분은 걷고, 말하고,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셔야 했다. 그분은 굶주리고 피곤했으며, 인간의 감정을 느꼈고, 또 질병과 고통을 겪고,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또는 약점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필멸의 지배 아래 두셨다.(히브리서 4:15; 또한 엘마서 7:11~12 참조)

단순히 연약함에 대해 회개할 수는 없는 일이며, 약점 자체가 우리를 불결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죄를 거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지만, 아울러 인간적인 약점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겸손과 신앙으로 이에 대처하고, 약점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모로나이가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약점을 염려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그 대신 주님은 그에게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라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온유하고 충실하면, 하나님은 약점에 대한 치료법으로서 용서가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경전 안내서에는 은혜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에게서 오는,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설명되어 있다.(경전 안내서, “은혜” 참조) 하나님은 신적인 치료법으로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다.

겸손을 실천하고 신앙을 행사함

교회 생활 초반부터 우리는 회개의 필수 요소를 배우지만, 겸손과 신앙은 정확히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것일까? 다음을 생각해 본다.

-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대해 즉각적이고 깊이 있는 변화를 요하는) 죄를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 지속적인 노력, 배움, 개선을 요하는) 약점을 다루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받은 양육과 우리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 하나의 행동에 죄와 약점의 요소가 둘 다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죄란, 사실 회개하는 대신 합리화하도록 이끄는 약점인 것이다. 또 약점이란 수치, 비난, 절망,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죄인 것이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리는 연약하므로 필요한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다 일으킬 수는 없다. 우리가 인간적 약점을 한번에 몇 가지 면만 극복하도록 겸손하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서서히 무지를 줄이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며,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있다.

- **계획을 세운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의로운 소망 이상이 필요하고 많은 수양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계획을 세우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정하며,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경전과 관련 서적,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작은 일을 시작하고, 향상된 것에 기뻐하며, (우리의 약점과 취약성을 느끼게 되더라도) 위험을 감수한다. 지치거나 낙담할 때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버팀목이 필요하며, 또한 발을 헛디뎠을 때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 **인내한다.** 우리는 연약하므로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리는 죄를 버리듯이 우리의 약점을 버리지는 못한다. 겸손한 제자는 요구받은 일을 기꺼이 행하고, 회복하는 법을 익히고, 계속 시도하며, 포기하지 않는다. 겸손은 우리 자신과 우리처럼 연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내는 주님을 믿는 신앙.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깨끗해지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 또 여전히 질병, 감정, 무지, 성향, 피로, 유혹에 예속되어 있다. 그러나 한계와 부족함은 죄가 아니며 깨끗해지고 영을 받기에 합당해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약점에서 강점으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죄를 짓도록 부추기려



건설적인 죄책감(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겸손을 무익한 가짜 수치심과 구별함

건설적인 죄책감—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신앙과 겸손— 약점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	파괴적인 수치심— 무익한 가짜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의 성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률을 어긴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 회개하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꾼다. • 마음을 열고, 잘못을 고백하고, 보상한다. • 성장하고 배운다. • 자신을 본질적으로 선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 우리의 행동을 긍정적인 자아상에 맞추고 싶어한다. •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구속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의 성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요한 확신을 느끼고 자신의 본 모습, 즉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 성장하고 기여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한다. •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고자 소망한다. •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시도한다. • 유머 감각을 개발하고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즐긴다. • 약점을 자기에게 주어진 타인과의 공통분모로 간주한다. • 타인의 약점과 결점에 참을성 있게 대한다. •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에 대한 신뢰를 키운다.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의 성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자포자기한다. • 자신의 약점을 타인에게 숨기려고 애쓴다. •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 문제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린다. • 위험 감수를 회피하고, 실패를 굴욕으로 여긴다. •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한다. • 방어적이고 완고하거나 미온적이 된다. • 빈정거리거나 지나치게 신중을 기한다. • 자신의 실패나 우울감에 사로잡힌다. • 하나님의 거절과 혐오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활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강화하고, 축복하실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나 소망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없애므로써 언제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자신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린도후서 12:9)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극적인 치료법을 통해 약점을 없애 주실 수도 있지만, 내 경험상 그런 일은 드물다. 예를 들어, 이더서 1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성구 이후에 하나님께서 글쓰기에 대한 모로나이의 약점을 없애 주셨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약점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약점에 대해 적절한 유머 감각이나 시각을 지니며, 시간을 두고 약점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도록 도우심으로써 약한 것들이 강해질 수 있게 해 주신다. 또한 강점과 약점은 (인내력이라는 강점과 완고함이라는 약점처럼) 종종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는 강점을 소중히 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약점을 완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또 다른 방법,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 주님께서는 이더서 12장 37절에서 모로나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네 연약함을 알았은즉 내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기에 이르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로나이의 약점을 바꾸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로나이를 변화시키려 하셨다. 모로나리와 우리는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씀으로써 자애, 동정심, 온유함, 인내, 용기, 오래 참음, 지혜, 활력, 용서, 회복력, 감사, 창의성, 그리고 좀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그 밖의 많은 미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자질들, 즉 하늘 나라의 대저택에 거하도록 준비되게 해 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연마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좀 더 그분처럼 되기 위해 인간적인 약점을 소중하고 거룩한 미덕과 강점으로 바꾸려 힘쓸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구속의 권능이 분명하게 임하는 때는 없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텔
장로
칠십인

정결한 종교

이타적인 봉사, 즉 자신을 잊고 타인의 필요 사항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마 태복음 11장에서 구주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심으로써 의미심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태복음 11:2-5).

구주께서는 간단한 교리적 설명, 곧 자신이 참으로 “오실 그이”라고 밝히는 대신 그분이 하신 일, 즉 봉사의 모범으로 대답하셨습니다.

201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영향을 미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살았던 존재 중 가장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이타적인 봉사, 즉 자신을 잊고 타인의 필요 사항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베냐민 왕은 구주가 탄생하시기 100년도 더 전에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모사이야서 2:17)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면서]”(야고보서 1:27) 타인에게 봉사할 때 “정결한 경건(religion: 종교)”의 핵심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결한 경건(종교)”이란 믿음을 선언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믿음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동료 여행자를 사랑하십시오

1984년 7월 중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하고 몇 주밖에 되지 않은 때였던 그때 아내 캐럴과 저는 유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타에서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캐럴은 대학 교육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차를 몰고 갔습니다. 두 차에 저희가 가진 물건을 모두 다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반쯤 갔을 때, 캐럴이 차를 몰고 제 차 옆으로 오더니 어떤 몸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휴대 전화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나 트위터 같은 것이 없던 시절입니다. 차 창문을 통해 표정을 보니 캐럴이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캐럴은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저는 새 신부가 걱정되었습니다.

유타 주 비버라는 조그만 마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캐럴이 다시 차를 몰고 제 차 옆으로 왔고, 저는 아내에게 차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럴은 몸이 아팠고 계속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두 차에는 옷과 결혼 선물이 가득했지만, 안타깝게도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텔 방을 얻을 예산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둘 다 비버는 초행길이었고, 뭘 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몇 분을 더 운전해 가다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약간 그들이 진 나무를 발견한 저는 거기에 담요를 깔고서 캐럴이 쉬 수 있게 했습니다.

몇 분 후, 거의 텅 빈 주차장으로 다른 차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두 사람의 차 옆에 주차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또래의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리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도움이 필요하냐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운전을 하면서 우리를 보고는 차를 세워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자기 집으로 가서 필요한 만큼 쉬 수 있게 해 줄 테니 당장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머니 택으로 가서 시원한 지하 침실에 있는 안락한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우리가 안정을 찾자 이 훌륭한 자매님께서는 자기는 볼 일이 아주 많아서 그러니 몇 시간 동안은 우리만 집에 있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주방에서 먹을 것을 찾아 먹어도 괜찮고, 또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가야 하면 현관을 닫고 가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참으로 절실했던, 잠을 푹 잔 후에 캐럴은 상태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주방에 들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다시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까지 그 친절하신 아주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주소를 적어 놓지도 않았고, 또 가던 길을 멈추고 어려움에 빠진 낯선 사람들에게 집을 활짝 열어 주었던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 참조)는 구주의 훈계를 많이 실천하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필멸의 여정에서 우리의 동료 여행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²

우리는 길과 가정, 놀이터, 학교, 직장, 교회 어디에서나

“동료 여행자들”을 만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축복하고 봉사하면서 구하고, 보고, 행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구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구하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귀한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죄를 속죄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슬픔조차 참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앨마서 7:11~12 참조)

비록 힘은 미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같은 자(제3니파이 27:27)가 되기 위해 진실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³

“동료 여행자들”을 축복하고 싶다는 진정한 소망을 품고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더욱더 구주와 같이 되려는 우리의 참된 소망을 시험하며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자주 있을 테지만, 만인을 위한 구주의 가장 위대한 봉사인 그분의 무한한 속죄 역시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9)

더욱더 구주와 같이 되려고 진정으로 노력할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영의 지시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있던 낯선 사람에게 다가올 만큼 영과 가까이 생활했습니다.

보라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곧 사물을 참으로 있는 대로 보는 것을 뜻하며, 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필요 사항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복 받을” 사람도 “저주를 받은” 사람도 똑같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험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 속에서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보[았나]이까”(마태복음 25:34~39, 40~44 참조)라고 물음으로써 그들이 받은 보상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다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이들만이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고는 행동으로 옮겨 고통받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저희의 선한 사마리아인도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의

필요 사항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행하라

우리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주려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레 짐작하여 우리가 나서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고 영적인 눈으로 동료 여행자들의 필요 사항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는 행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견뎌 된” 남자와 마주쳤는데, 그 남자는 두 사람에게 구걸을 했습니다.(사도행전 3:1~3 참조)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본보기이자 권유가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사도행전 3:6~7).

우리는 시간과 재능, 친절할 말, 또는 신체적인 일을 함으로써 행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본다면, 우리는 행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행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와 똑같은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상 생활을 해나가면서, 각자의 여리고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나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강도를 만나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나는 부상당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갈까요?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또는 나는 보고 듣고 잠시 멈춰서 도울까요?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결코 어느 것에도 비할 바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⁴

구하고, 보고, 행하여 더욱더 구주와 같이 되어 가면서 우리는 베나민 왕의 이런 말씀이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라]”(모사이야서 2:17) ■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본을 보였노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35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사랑-복음의 정수”,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1쪽.
3. 닐 에이 맥스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22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여리고로 가는 길”,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74쪽.

진심으로 구한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

행하고 축복한다





합조서

Need This Every Hour

신소프신
유구슬하

없기되소



“느
르

무엇을 더 가르쳐야 할지 막막할 때,
동반자는 이 찬송가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함께 하소서”

조나단 에이치 웨스트버

한 국 발산동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시절,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에 동반자와 나는 교회 모임이 끝난 후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와드 선교 책임자가 소개해 준 강성균이란 12세 소년에게 복음을 소개하러 나가려고 했다. 강성균은 그날 교회에 참석했고 복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물론 우리는 강 형제를 가르칠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지만 그렇게 어린 학생을 가르치려니 긴장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확실히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로 하고, 강성균의 집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인 박미정 씨와 짝막한 대화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들이 교회를 참석하려 하는 것을 기뻐했으며 우리가 집에 와서 아들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대하지 않았던 구도자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소년의 집에 도착해서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미정 씨는 우리에게 딸인 강수진에게도 복음을 가르쳐 주길 바랐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했기에 박미정 씨도 선교사 토론에 함께 참석해보고 싶어 했다. 물론 우리는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서 기뻐다.

우리는 다과를 대접받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미정 씨는 곧장 공과를 시작하기보다 우리를 좀 더 잘 알고, 또 우리에게 가족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아들이 최근에 암에 걸려 투병 중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가족이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알려 주었다. 아들은 성공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암이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지만, 의사들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족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그들은 부유한 가족이 아니었기에,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닥친 시련에 놀랐고, 마음이 아팠다. 삶이 녹록지 않았지만, 이 가족들에게서는 한국에서 만난 그 어느 가족보다도 훨씬 더 큰 친밀함이 느껴졌다. 한국과 같은 가족 중심 사회에서 이런 면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날 저녁 이 특별한 가족을 더 잘 알게 되었으며 그들과 복음 메시지를 나눌 기회를 얻고 그 집을 나왔다.

동반자와 나는 그 주에 몇 차례 가르치기 위해 다시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우리는 처음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따뜻함과 호의를 경험했다. 침례 이야기가 나오자 두

아이도 몹시도 교회에 가입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들만큼 열의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우리의 가르침에 흥미가 생기고 그것이 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교회에 가입하는 데 요구되는 성약을 맺고 지킬 수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또한 우리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남편을 두고 자기만 침례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기꺼이 우리를 계속 만나려 했고 자녀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려 했다.

둘째 주가 끝날 무렵, 계속 그녀의 집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는 남편인 강국원 씨를 만났는데 그는 겸손하고, 자애롭고 관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남은 몇 토론을 우리와 함께 했고 우리가 가르친 모든 것을 곧바로 믿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종종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는 십일조와 지혜의 말씀과 같은 교리도 포함된다. 그들은 궁핍하다 할 수 있는 당시의 재정 상태에서도 십일조를 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유일한 장애물은 일요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요일마다 공항에서 근무를 했기에 가족과 교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뻘뻘한 근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내어 다음 일요일에 열린 자녀의 침례식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

자녀가 침례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 그 가족의 집에서 자주 만났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하고, 경전과 마음을 고양시키는 경험을 나누었으며, 그들에게 워드 회원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복음과 관련된 경험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부모는 침례에 더 다가가지 못했다.

한편, 내 동반자는 이동을 가고 선교사 훈련원에서 막 나온 장로가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신앙과 활기, 열의로 가득 차 있었기에 솔직히 나는 그를 따라가기가 벅찼다. 강국원 씨와 박미정 씨를 몇 차례 만난 후 동반자는 내게 와서 이전 동반자와 내가 그들과 함께 금식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금식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 나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을 만나 금식을 제안했다. 나는 그들이 아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절을 마치자 영이 그 방에 강하게 임했다. 박미정 씨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저는 침례를 받아야 해요.”라고 말했다.

강국원 씨가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 일정이 변경되게 해 달라고 자진해서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반자와 내가 그들과 함께 금식에 참여하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강국원 씨의 근무 일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박미정 씨는 여전히 완강하게 침례를 받지 않으려 했다.

영감으로 주어진 한 생각

그때 동반자는 다른 기발한 생각을 했다. 그는 자신의 소형 찬송가를 꺼내서 그들과 함께 찬송가를 불러도 되는지 물었다. 우리는 전에도 함께 노래를 불렀지만, 박미정 씨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나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거나 음악이 생소하여 노래 부르는 걸 불편해한다고 추측했었다. 동반자가 그녀에게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지 묻자, 놀랍게도 그녀는 소녀 시절부터 좋아하는 찬송가는 “늘 함께하소서”(찬송가 97장)였다고 목이 멘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4부 화음으로 노래를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멜로디를, 어머니는 알토를, 동반자는 테너를, 나는 베이스를 불렀다.

방 안에 영이 강하게 임했다. 3절을 불렀을 때,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목이 잠겼고, 우리는 노래를 계속했다.

늘 함께하소서
기쁘나 슬프나
계시지 않으면
내 생애 헛되네
언제나 나의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오 주께 나가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절인 4절을 모두 마쳤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남편이 다독여 준 후에야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저는 침례를 받아야 해요.”라고 말했다.

강국원과 박미정 씨의 침례식이 있었던 그 일요일 오후는 내 선교 사업 중 가장 영적인 시간으로 꼽힌다. 자녀가 침례식 순서에 참여했고, 지역의 여러 회원이 참석해서 와드의 새로운 개종자 가족에 대해 지지를 보여

주었다. 동반자와 나는 특별 음악 순서로 “늘 함께하소서”를 불렀다.

후에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대학에서 1년을 보낸 후에 여름 인턴 과정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고, 선교 사업 동안 만났던 여러 특별한 친구와 가족을 방문할 시간을 주말마다 마련했다. 몇 주 후에 나는 발산동으로 돌아와 이 특별한 가족을 만났다. 그 집에 도착해서, 나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박미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암이 재발하여 아들이 열네 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애쓰자 강국원 씨는 다 괜찮을 거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복음을 사랑했고 충실히 교회를 다녔으며 서울 성전에서 함께 헌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을 날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들은 비통함을 느끼면서도 성균이를 다시 볼 것이며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미정 씨는 또한 매일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극복할 힘을 얻고 영이 가져다주는 평안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그 집을 떠나면서 나는 박미정 씨가 좋아하는 찬송가 구절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균이가 떠난 후 가족이 평안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특히 박미정 씨가 개종하도록 도와준 영의 역할에 감사드린다. 이로써 가족은 성전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애통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는 찬송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회개하고 선행을 하게 하며, 간증과 신앙을 키우며, 지친 자를 쉬게 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안해 주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내도록 영감을 줍니다.”

“제일회장단 머리글,
찬송가 ix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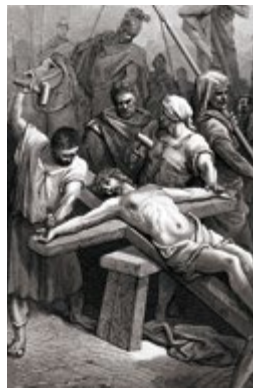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심이사도
정원회 회장

구주의 이타적이고 거룩한 희생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구속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형벌을 치르신 셈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빛을 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채는 쌓여 갑니다. 하지만, 갚아 나간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제를 배움으로써 부채를 미리 청산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자와 벌금을 물어야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정기적으로 영적인 빛을 갚아 나가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험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운 일, 또 바로잡기는커녕 사죄조차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했을 것이며, 그래서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죄책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입니다. 이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 얼룩처럼 쉽사리 씻기지 않습니다. 죄책감에는 실망, 즉 축복과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후회가 뒤따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물문경의 인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 예언의 영광 계시의 영을 믿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눈 앞에 다가왔더라.”(힐라맨서 4:23)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그리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죄책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압니다. 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은 늘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엘마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그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을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오시리라.”(엘마서 9:27)

또 엘마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아들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영혼의
생명기도 같이 영원한 형벌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임할 수 없었나니, ……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반대로써 부가된 것이니라.”(엘마서
42:16)

필멸의 생애에는 두 가지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이 육신은 정결하게 되고 우리는
승영하여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 잘못을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잘못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한1서 1:10)

여러분은 정신과 육체적인 면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만기가 지난” 영적 부채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조용한 묵상의
순간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해결되지 않아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대다수는 이런 시간을 애써 피하려 합니다)
양심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어느 정도 여전히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비극적인 잘못을 범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너무나 자주 받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묻습니다. “제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답은
물론 ‘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복음은 회개를 통해 비탄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스스로 멸망을 택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크든 작든, 완전한 용서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습관이나 중독, 반항이나 범법, 또는
범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돌아올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도 강렬한 충동, 마음속에
멤도는 유혹에 깊이 빠져 결국은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중독에 이릅니다. 우리는 범법하거나
죄를 짓기 쉬우며,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에 죄가
없다고 합리화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다 함정에
빠져 구주가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비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멈출 수 있고
구속받을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가족을 공격합니다.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님은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지만 말고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하십시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함이니, 이 같은 방법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하심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에 빛을 주심이니”(니파이후서 31:3).

새겨 들으십시오!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부름과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사탄은 경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 저 옛 뱀이라.”(니파이후서 2:18). 사탄은 태초에 쫓겨났으며(교리와 성약 29:36~38 참조), 육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을 좌절시키고 모든 의의 원수가 되겠다고 공언합니다. 사탄은 가족을 공격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외설물이라는 재앙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간해서는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설물은 생명을 낳는 힘의 원천인 여러분의 본성 일부를 겨냥합니다.

외설물에 탐닉하면 어려움과 이혼, 질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됩니다. 거기에는 순결한 부분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외설물을 수집하거나 보거나 소지하는 것은 가방에 방울뱀을 넣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외설물은 영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그 끔찍한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니만큼 외설물에 노출되어 그것을 읽고 본다 해서 죄가 될 게 무어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다면,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물문경에는 모든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다]”(니파이후서



인류사에서 전혀 죄가 없고 모든 인류의 죄와 범법을 대속할 자격이 있으며,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입니다.

2:5)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잘못은 주님께 직접 고백하면 되지만, 용서를 받으려면 그 이상이 필요한 범법도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이라면, 감독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고백이라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용서가 즉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잘못을 범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을 극복해 내는 것도 시험의 일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죄를 고백하고 버렸다면 절대 뒤돌아 보지 마십시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구속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형벌을 치르신 셈입니다.

필멸의 상태에 있는 우리로서는 주님이 어떻게 속죄의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난을 어떻게 겪으셨는가보다는 왜 겪으셨는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요한복음 15:13)

그리스도께서는 겐세마네에서 사도들 곁을 떠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실수와 죄, 죄책감, 의심, 두려움을 자진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비탄에 빠졌거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의 고통을 능가한 경우는 없습니다.

제 나이가 되고 보니, 육체적인 고통이 무언지 알겠습니다.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고통에 관해 무언가를 배우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견디지 못할 만큼 비통합니다. 비로소 그런 때에야 겿세마네 동산에서 구주가 겪으신 고난을 어렵듯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통은 그전이든 그 이후이든, 다른 모든 고통과는 달랐습니다. 인간에게 이제껏 부과된 모든 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는 갚아야 할 빚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알려진 모든 죄책감과 슬픔, 고통과 굴욕, 모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고통 등을 누적해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인류사에서 전혀 죄가 없고 모든 인류의 죄와 범법을 대속할 자격이 있으며, 대신 갚을 지불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바치시며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자가 나임이니.”(모사이야서 26:23)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에 동의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가능하다

한동안 휘청거리거나 길을 잃은 적이 있다면, 또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더는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는 평화와 안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한 후에”(니파이후서 25:23) 받게 될 하나님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이런 가능성이야말로 알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진리입니다.

저는 용서의 밝은 아침이 올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이 해가 떠오르듯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도 주님도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예레미야 31:34)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쨌든 알게 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4:1~3 참조)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대가를 늘 치러 주신다는 점에서 주님은 매우 친절한 통치자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여러분이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분을 보내 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낙담과 죄, 죄책감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관대한 조건에 따라 부채 계정에 남아 있는 모든 항목에 “완납” 표시가 붙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이사야 1:18~19).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내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는 성구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평강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이 따르는 권유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시라]”(디모데전서 4:12)

여러분의 생애 내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이와는 반대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든 미래든, 평안과 신앙을 갖고 버텨 나가겠다는 신념과 낙천적인 자세로 인생의 어려움에 맞서십시오.

받고 싶거나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실하게 생활하는 한, 구속과 구원에 필요한 어떤 경험 또는 기회도 박탈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자주 기도하십시오. 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은사를 통해 인도와 아울러 행할 일을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의 결과로 죄책감이나 실망감, 또는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거나 축복이 아직 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찬송가 “예수께 오라”에 나오는 다음 가사를 읽고 확신을 주는 가르침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께 오라 죄에 시달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가 우릴 편히 설 곳에
인도하여 주시리로다



낙담과 죄, 죄책감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관대한
조건에 따라 부채
계정에 남아 있는
모든 항목에
“완납” 표시가 붙을
것입니다.

예수께 오라 어둠 속에서
헤맸지라도 살피시네
그의 사랑이 어둔 밤에서
밝은 낮으로 인도하리

예수께 오라 온유한 맘에
사랑 구하면 들으시리
광명한 저 위 하늘 집 천사
가까이 있는 줄 모르노¹

저는 다른 형제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에서 오는 정결하게 하는 영향력을 제 내면이나 다른 분들에게서 느낄 때마다 그러한 간증은 확고해집니다.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저의 간증은 진실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에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길을 따라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이 없는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² 사탄은 육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유혹에 직면하더라도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져 이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실 일을 하겠다는 소망과 열망을 품고 앞을 내다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

2011년 11월 6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전한 “가장 알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예수께 오라”, 찬송가, 77장 참조.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1쪽 참조.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라

내가 딸 레베카를 막 출산했을 때였다. 산통이 대단했고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레베카를 팔에 안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를 불러야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 나중에 불러 줘도 되겠지.’ 하지만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솟구쳤다. 그래서 탈진 상태이기는 했지만, 1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남편과 어머니도 함께 불렀다.

노래를 마쳤을 때, 병실에서 특별한 느낌이 느껴졌다. 그때까지 사무적으로 대하며 우리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던 의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여의사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줘서 고맙다고 했다. 출산 담당 의사로 일해 온 여러 해 동안 그 순간과 같은 기분을

느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찬송가 녹음물을 찾아 그녀에게 주면 어떻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생활에 바빠지면서 그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그러다 산후 정기검진 날짜가 다가왔다. 진찰실로 들어온 그 여의사는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다가와서 나를 꼭 안아 주었다. 그녀는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었고, 가족에게 불러 주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서 그 노래를 백방으로 찾아보았다고 했다. 그때, 성신은 그녀에게 그 노래 녹음물을 진작에 줘야 했음을 나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다. 나는 일주일 내에 그 노래가 녹음된 것을 갖고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가장 알맞게 편곡된 노래를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튿날 오후에 그 노래가 들어 있는 CD를 주문했다. 며칠 뒤에 CD가 도착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선물을 받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마워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만큼 이 노래가 중요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대화를 계속하면서 나는 그 노래에 대한 나의 사랑뿐 아니라 노래가 가르치는 단순한 진리에 대한 간증도 함께 전해 주었다.

그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 중 한 사람인 그 여의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하나님은 그녀를 알고 또 사랑하시며, 그녀도 돌아가서 다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이해하기를 바라신다. ■
앤절라 오 센터, 미국

우리가 노래를 마쳤을 때, 그때까지 사무적으로 대하며 우리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던 의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
나님 아버지는
왜 “항상”
우리를 돌보고
경고해 주시지
않는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분의 약속

성 찬식에 앉아 떡에 대한 기도문을 깊이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모로니아서 4:3; 교리와 성약 20:77)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단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몇 달 전에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쳐 열린 살 난 우리 아들이 목숨을 잃기 전에, 남편과 나에게 그 아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왜 알려 주시지 않으셨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왜 “항상” 우리를 돌보고 경고해 주시지 않는가?

나는 초등학교에서 성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다. 그분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며, 위협에 대해 경고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생각은 벤이 죽은 후 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다. 나는 벤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이해가 되지 않아 가슴이 아팠다.

경고의 음성은 어디 있었는가? 성신은? 나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십일조를 바치고, 모임에 참석했으며, 요청받을 때마다 봉사를 서슴지 않았다. 완벽함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가정의 밤과 경전 읽기를 했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상호부조회 공과반에 앉아서 교사가 가까운 친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 친척은 신호등에서 기다리다가 파란 불이 들어왔지만 서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그 속삭임을 따르자 거의 즉시 큰 트럭이 빨간 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로 질주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녀와 자녀는 다쳤거나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에 나는 크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앓은 채로 눈물을 흘리면서 곧장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커다란 위로가 나에게 엄습해 왔다. 나는 성신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 내 경우에 성신은 경고의 음성이 아니라 보혜사로서 거기에 있었다.

벤의 사고가 있는 후, 나는 나의 힘을 초월한 어떤 힘을 느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았다.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부족할 때가 있기도 했지만, 그분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알고 계시며 위로도 없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신앙이 있다. 성신은 우리 삶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인도하고 위로하며, 가르침을 주고 이해시키며, 다른 축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 ■

로빈 카스퍼, 미국 유타



영이 나에게 속삭였다

“애 들어! 들어와!”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다섯 살과 일곱 살쯤 되는 두 사내아가 울면서 백화점 주차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아이들을 부르는 판매원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내가 차 쪽으로 돌아가려 하자 영이 속삭였다. “여기서 도울 일이 있을 것이다.” 세미하지만 분명한 속삭임이었다. 나는 곧장 아이들을 향해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큰 아이가 갈색 미니밴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다가가서 그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안녕, 내 이름은 크리스티나야. 너 괜찮니?”

내 말에 아이는 팔로 얼굴을 감싸며 더 크게 울었다. 판매원과 다른 아이가 우리 옆으로 왔다.

“애들은 불어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판매원이 말했다. “길을 잃고 매장을

지나 달려가는 걸 저희가 방금 발견한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불어로 내 소개를 했다. 불어는 내 모국어다. 하지만 어릴 때 영어를 쓰는 가정에 입양된 후로는 불어를 쓸 일이 없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불어는 서투르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어설프지도 부자연스럽지도 않게 불어로 말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마음속에 분명한 단어가 떠올랐고 분명한 소리로 말했다.

큰 아이는 흐느끼면서 자기와 동생은 백화점 어디에서도 부모님을 찾을 수 없어서 아빠 엄마를 찾으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숨가쁘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가 불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공포에 질린 두 아이를 쉽게 이해하며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느껴졌다.

나는 판매원에게 “아이들은 부모님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여기 차 옆에서 기다리려 한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소년은 부모님의 성함을 알려 주었고

다섯 살과 일곱 살쯤 되는 두 사내아가 울면서 백화점 주차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판매원에게 전해 부모를 찾게 했다. 몇 분 후, 아이는 매장 밖으로 나오는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소년을 따라 아버지에게 가면서, 이제 더는 불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작별 인사조차도 뭐라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알아듣도록 무슨 말이라도 해 보려 했지만 허사였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몇 마디 단어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별수 없이 나는 영어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잘 가, 만나서 반가웠어.”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 곁을 떠나면서 내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해 그분의 두 어린 자녀를 위로해 주셨다. 나는 주님이 내 제한된 능력을 극대화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겸손해졌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까지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었다. ■

크리스티나 알브레히트 이어하트,
미국 워싱턴

우리는 지금 성전에 가야 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와드에서는 최근에 침례를 받은 한 회원이 소개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리디아였다. 리디아는 단번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리디아는 오랜 시간 당뇨로 시달린 끝에 늙고 시력도 상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와드 회원들을 금세 알아보았다. 리디아는 우리의 이름을 말하고 악수를 했으며, 우리는 리디아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필요한 1년이 지나자, 리디아는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을 만나서 성전 추천서를 받았다. 어느 일요일,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리디아는 나를 곁으로 끌어 앉히더니 이렇게 말했다. “스테이크 회장님이 나더러 되도록 빨리 성전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날 성전에 데려가주시겠어요?”

그때는 12월 첫째 주라서 우리 모두에게 바쁜 시기였다. 나는 통상적인 변명을 하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말했다. “1월까지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스** 테이크 회장님이 나더러 되도록 빨리 성전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리디아가 말했다. “날 좀 데려가주시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가야 해요!” 와드에서 몇몇 자매들이 매달 성전에 가고 있었기에 나는 그분들에게 가서 리디아의 성전 방문 문제를 상의했다. 하지만 자매님들도 모두 무척 바빴다. 그러자 리디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스테이크 회장님이 되도록 빨리 성전에 가라고 하셨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 말에 우리는 돌아오는 주에 240킬로미터에 달하는 성전 여행을 감행하기로 했다. 여행 길에서 우리가 탄 밴은 여덟 자매의 수다와 정담으로 떠들썩했다. 리디아는 성전 경험과 엔다우먼트를 받은 축복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1월 첫 주가 되었을 때, 리디아는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1주일 후에 그만

세상을 떠났다. 불과 몇 주 전에 성전에서 받은 영원한 축복과 함께 그녀는 떠났다.

나는 후에 스테이크 회장님께 우리의 여행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회장님이 영감을 받아 리디아에게 즉시 성전에 가야 한다고 말씀한 사실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알려드렸다.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실은 바로 성전에 가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늘 추천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빨리 성전에 가라고 하거든요. 리디아에게 말한 분은 제가 아니고 영이었죠!”

리디아는 영에 귀 기울이고 곧바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다.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상기시켜 준 그녀가 고맙다. ■
메리 홈즈 에웬, 미국 캘리포니아





앤소니 디 퍼킨스 장로
칠십인

신앙으로 나아가

청년 여러분은 지금 “결정의 10년”이라 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성전에 가며, 선교사로 봉사하고, 교육을 받고, 직업을 선택하며, 배우자를 택해 성스러운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받는 일이 포함됩니다.”¹

저는 특히 이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결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그릇된 결정을 내릴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거나 전에 내린 결정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니파이가 내린 영감 어린 결정에서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교훈을 적용하면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니파이의 거룩한 기록 마지막 구절에는 그의 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셨음이니 내가 순종해야만 하리라.”(니파이후서 33:15)

구주를 향한 니파이의 신앙과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기도했고(니파이전서 2:16 참조) 경전을 읽었으며(니파이전서 22:1 참조) 살아 있는 선지자의 지시를 구하고 이를 따랐습니다.(니파이전서 16:23~24 참조) 그렇게 순종했기에 니파이는 생애 내내 성신을 굳건히 동반할 수 있었으며 계속해서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에 귀 기울이고, 타인에게

니파이가 내린 영감 어린 결정에서 배울 수 있는 네 가지 교훈을 적용하면,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계속 순종할 때, 영과 그 영이 가져다주는 계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온전함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 필수 조건이란



구주를 향한 니파이의
신앙과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
잘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줄이고 확신을 키우려면

1. 계명에 순종한다.
2. 신앙으로 나아가간다.
3. 현재를 충실히 산다.
4.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한다.

바로 매일매일의 회개입니다.(로마서 3:23 참조) 여러분의 회개가 진지하고 철저하다면(교리와 성약 58:42~43 참조),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권능이 영을 불러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2.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니파이의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재산을 버리고 광야로 떠나라고 명하셨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여행과 목적지에 대해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그의 앞날을 계시해 주셨다면 니파이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파이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니파이 가족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시시로” 지시가 주어졌습니다.(니파이전서 16:29; 18:1) 니파이의 인생 여정이 미리 분명하게 보여졌다면 그가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된 경험, 즉 영을

고양시키고 신앙을 형성해 준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전공을 추구하고, 누구와 결혼하며, 어떤 직업을 받아들이고, 어디서 살며,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녀는 몇이나 낳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길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결코 집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시시로” 주어질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는데, 여기에는 사실을 평가하고,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결정에 대해 그분께 기도할 것을 권유하십니다.(교리와 성약 9:7~9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²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확신을 확인함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결정이 옳다고 확인해 주는 평화, 평안, 그리고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³ 제 아내 크리스티와 저는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확신이 경전을 통해 오거나 때로는 성전 예배 후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저희는 많은 숙고와 기도 끝에 저희가 꿈꾸던 텍사스의 새 집을 포기하고 전근 제안을 받아들여 어린 여섯 자녀와 함께 중국 북경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대한 이주와 관련하여 영적인 확신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읽었을 때 신성한 확신이 왔습니다. “…… 나의 뜻이니라 …… 이 곳에서 여러 날 머물지 말며, …… 네 재산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동쪽 땅으로 가라”(교리와





**주님이 분명하게 그의 앞날을
게시해 주셨다면 니파이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파이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으며”(니파이전서 4:6~7).

여러분은 선택의 10년 동안 더는
미룰 수 없는, 행해야 할 순간이 닥칠
것입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을 때 그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한 지침을
간구하며, 그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⁶

영은 니파이에게 그랬듯이 적당한
때에 여러분이 선택한 길에 대해 확인
또는 경고를 해 줄 것입니다.

성약 66:5~7)

경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성신의 강력한 느낌을 동반하여
중국어로 이사하려는 우리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불안한 느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불안한
느낌, 생각이 둔하여짐을 통해서”⁴입니다.

저는 대만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국제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 경력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티와 제가
그러한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니
우리 앞에는 비싼 교육비를 들여 5년을
더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놓여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졌고
수중에 있는 돈도 한계가 있었기에
공군 학사 장교 훈련단에 지원하는
것이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험을 보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저희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생각이 둔해지거나 음울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재정적
결정을 내린 탓으로 제가 정말 엉터리
변호사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의 신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무응답입니다. 스코트 장로님은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구주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으며,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신뢰를 가지고 행하십시오.”⁵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는 늦쇠판을 얻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신뢰와
더불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느니라.

3. 현재를 충실히 산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 대한
니파이의 결의는 그의 형 레이맨과
레뮤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은
가기로 결정했지만 마음은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들이
천막에서 빈둥거리는 동안 니파이는
양식을 얻기 위해 사냥을 하고자 부러진
활을 고쳤으며, 배를 지으려고 광석을
깎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레이맨과 레뮤엘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파이와 같은 헌신적인
남녀를 필요로 하십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전력을 다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빼어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은
인생에서 더 큰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주신 다음과 같은 현명한 권고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과거의 백일몽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위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날이며,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⁷

4.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한다

우리가 영을 구하고, 결정을 내려 나아가며 그 결정에 전력을 다할지라도, 여전히 의심이 생기고 자신의 결정에



힘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선교사로서, 또는 다른 의로운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계발한(또는 계발해야 할) 영적인 힘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일은 바람직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데에서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자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 신앙,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용기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갖춰야 할 최고의 자질입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배우자가 현명한 권고와 힘을 [언기 위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된 정결한 남성과 합당한 여성은 동등한 동반자로서 어려운 일들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니파이와 현대 선지자들로부터 배운 교훈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시시로”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며 인도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결정의 10년을 거치는 동안 니파이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신앙을 지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느니라.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으며”(니파이전서 4:6~7) ■

2014년 2월 4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 “Nevertheless I went forth”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결정의 10년을 위해 준비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48쪽.
2. 리차드 지 스코트,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쪽.
3. 리차드 지 스코트,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10쪽.
4. 리차드 지 스코트,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10쪽.
5. 리차드 지 스코트,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10쪽.
6. 델린 에이치 옥스, “주님이 정하시는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리아호나*, 2013년 8월호, 26쪽.
7. 토마스 에스 몬슨, “보물을 찾아서”,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1쪽.
8. “물문장: 전 세계의 관점”에 나오는 케이 신 설리빈 작, 배우자, *리아호나*, 2000년 12월호, 37쪽 참조.

그런 상황에서는 믿을 만한 식구나 친구가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권고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의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믿을 만한 식구나 친구가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권고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니파이가 여행을 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니파이에게 믿을 만한 닻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니파이의 아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거센 폭풍우에 몸이 흠뻑 젖어서 배의 돛대에 묶여 있는 니파이의 그림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⁸

니파이의 곁에는 아내와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니파이처럼 같은 폭풍우와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눈을 부릅뜨고 강한 팔로 니파이의 어깨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도 시련의 시기에 힘을 주는 충실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도 아내에게 비슷한

주님을 찾으라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5~6)



조셉 덕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있었기에 여러분은
각기 다른 여섯 가지 경로로 자신의 삶을 발견한다.
(또는 발견할 수 있다.)

테드 반스
신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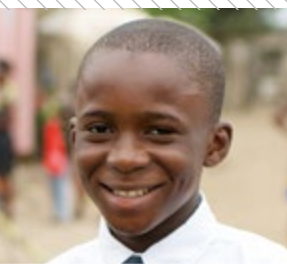
조셉 스미스는 170여 년 전에 사망했다. 그는 38년밖에 살지 않은 데다가 그 시간 대부분을 보낸 장소들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작성된 지도가 아닌 이상, 그 장소들을 지도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가 생애에서 했던 많은 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걸 헤아리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여섯 가지부터 시작해 볼 수 있다.
조셉 스미스가 있었기에,

1.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재하심을 이해한다.

조셉 스미스가 없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성경에 대한 간증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셉 스미스가 회복해 준 것, 즉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서 얻을 수 있는 힘차고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여러분의 이해력이 얼마나 깊어지고 분명해졌는가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여러분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 즉 부활하신 구주께서 미대륙에 나타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온 땅의 하나님이[심음]”(제3니파이 11:14) 친히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이 니파이, 앨마, 모로나이 등과 같은 선지자들의 강력한 간증으로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 조셉 스미스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그는 살아 계시[나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 그를 보았[음이라.]”(교리와 성약 76:22~23)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도전을 받아 흔히 그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 시대에 이런 빛을 추가로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3.

여러분의 가족은 영원할 수 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것일까? 아마도 그들은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교리, 즉 결혼과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영원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교리와 성약 49:15; 132:7 참조) 결혼과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쓸모없어진, 인간이 만든 전통 따위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질서에 속해 있는 것이다.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신권 열쇠와 성전 의식 덕분에 영원한 가족은 이곳 지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



2.

여러분은 자신이, 또한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

조셉 스미스가 회복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아마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진리일 것이다.¹ 그분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던 일을 멈춘 채, 그 사실에서 파생된 진리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진리는 여러분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꿔 준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그분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안다. 그 진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바꿔 준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가 되는 것이다. 그 진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준다. 인생의 모든 기쁨과 시련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 일부로서 여러분이 그분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부르는 노래는 상당히 좋은 노래이다.²

4.

여러분은 신권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신권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은 신권 축복으로 치유와 위안과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묶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매주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신권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교리와 성약 84:20~21 참조) 조셉 스미스를 통해 성취된 일이 없다면 이 중 어느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원문: 내 마음의 소망(초판본) 시편, 율타 레인, 작, 위쪽: 파라과이 이순시몬 성전

5.

여러분은 해로운 물질에
중독되는 것에서
자유롭다.

아니면 적어도 자유로울 수는 있다. 단, 조셉 스미스가 1833년에 받은 계시에 순종한다면 말이다. 그것은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임상으로 증명되고 술이 간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오래전에 받은 계시였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주는 선지자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따라오기를 기다리겠는가?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심을 보여 준다.(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무엇보다도,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 밝혀져 있듯이 몸이 있으면 좀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계시다.(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일요일에 깊이 생각할 것들

-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 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더 잘 보일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더불어,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눈다.
- 조셉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본다. 시간을 내어 무릎 꿇고 기도로 그분께 인도를 구한다. 그런 후, 기다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한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201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인 “조셉 스미스”를 읽는다.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쌓고 나누는 방법에 관하여 앤더슨 장로가 언급한 두 가지를 적용할 계획을 세운다.



6.

여러분은 성신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다.

소년 조셉이 성스러운 숲으로 걸어 들어간 1820년 당시, 많은 교회에서는 계시가 과거에만 존재했다고 공통적으로 믿었다. 조셉의 첫번째 시현은 그것이 잘못된 믿음임을 증명한다. 하늘은 열려 있다. 선지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겸손하게 부지런히

구한다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교리와 성약 42:61; 88:63 참조) 예를 들어,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가 알아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즉 하나님께 직접 여쭙어 봄으로써 조셉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다

이 목록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이 목록에 추가하겠는가? 조셉 스미스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37~44쪽 참조.
2. “단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살아 계신 선지자는

돌아가신 선지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

……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시는 계시에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던, 방주 짓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그 자신만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우리 시대에 살아 계신 선지자로, 주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 것은 매달 교회 잡지에 실리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 [리아호나] 잡지에 실리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매 6개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용하여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반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아 계신 선지자들이 항상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1899~1994)

“선지자를 따르는 14개의 기본 원리”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 1980년 2월 26일)

좋은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살아 있는 선지자를 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족과 친구,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나누어 주세요.



순종에 관한 구주의 모범

구주의 모범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된다.

20 1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우리가 구주의 생애에서 배우는 모든 교훈 중 순종에 관한 것만큼 분명하고 힘 있는 가르침은 없습니다.”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구주의 모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구주께서 성역을 통해 보이신 모범들을 살펴보면, 그 모범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는지 생각해 본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요한복음 5:30; 또한
요한복음 6:38; 8:28~29; 14:31 참조)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말로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와서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

여러분은 더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2

1.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나 “모든 의를 이루[시려]”(마태복음 3:13~17; 또한 니파이후서 31:4~7; 요한복음 3:5 참조) 침례를 받으셨다.

2. 예수님이 열두 살이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순종하여 받드[셨다.]”(누가복음 2:42~51 참조)

3. 예수님은 비록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 달라고 청하셨으나 겻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감내하셨다.(마태복음 26:36~44; 누가복음 22:39~54 참조)

4.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으며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하셨다.(누가복음 4:16~44 참조)

5.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영광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판결에 따르셨다.(이사야 53:7; 마태복음 26:53; 모세서 1:39 참조)

6.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으려는 사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심으로써 자신의 일을 이루셨다.(마태복음 27:35; 요한복음 10:17~18; 갈라디아서 1:3~5 참조)

3



우리의 구주께서 순종하셨기에



“우리의 구주께서는 순종하셨기에, 우리 죄를 속죄하시어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멸의 생에서 순종을 배워 가면서 실수를 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율법과 의식과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35쪽.



1



6



7

청소년

8

“[그리스도께서는]
 성역 내내 유혹을
 받으셨으나
 ‘[그]에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20:22]”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9



4



7.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영의 세계에 가서 그곳의 선교 사업을 조직하셨다. (베드로전서 3:18~20; 4:6 참조)

8.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으나 굴복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4:1~11; 교리와 성약 20:22 참조)

9.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교회를 인도하셨다. (조셉 스미스—역사 1:16~17; 교리와 성약 19:2, 24 참조)



5



우리는 재빨리 방화복을 입고 출동했다. 불길의 엄청난고, 우리가 그 가게로 다가가자 뭔가가 우리 쪽으로 폭발했다. 화염이 우리를 덮쳤다. 폭발로 동료와 나는 몇 초 동안 방향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는 장비와 방화복 덕에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 화재를 진압하고 소방서로

돌아왔을 때, 나는 동료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동료가 그렇다고 말하자 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우리의 방화복과 같다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대적의 강력한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전신 갑주를 착용해야 한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보호력을 축복받고 성신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

페르난도 데 라 로사 마론, 멕시코

소방대원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자 원봉사 소방대원으로 일하던 어느 평온한 날, 나는 물문경을 읽기로 마음 먹었다. 내가 물문경을 읽는 모습을 본 동료 한 명이 나에게,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경보가 울렸다. 근처 상점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성구

서무엘상 16:7.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나 자신을 평범한 능력을 지닌 평범한 사람으로만 여겼다.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퇴짜를 맞고 상처받을까 무서워서 진짜 모습을 보이기를 두려워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강하고, 똑똑하고, 더 나은 것 같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면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에게서 신성한 속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제 나는 더 똑똑하다거나, 더 부자라거나, 더 잘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겨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으며, 심판을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의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과 순종에 바탕을 둔다. ■

조안 아주세나, 필리핀

일요일에도 일하시겠어요?

열 다섯 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강한 간증을 얻고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무척 행복했다. 당시에 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침례를 받고 오래지 않아 직장을 잃었다.

가족이 나에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새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지원하는 직장마다 일요일에 일을 해야 했다. 여러 곳에서 나를 채용하겠다고 했으나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했기에 나는 모두 거절했다.(교리와 성약 59:9~10 참조)

2개월 동안이나 직장을 찾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직장을 거절한 것에 무척 노여워하셨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눈물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네가 그토록 충실하게 옳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두실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도 알아요.”

다음 날 아침,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틀간 무거운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 돈을 받은 나는 곧장 집으로 와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곧이어 나는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 좋은 직장을 찾았으며, 그 이후로는 실직한 적이 없다.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결심해서 기쁘다.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강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임을 나는 안다. ■

사힐 사마, 인도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지혜로워지는 방법

오 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배운 것을 잘 적용하기 위해 **자세히 살피고 파악하는 지혜, 즉 지혜**입니다. 다음 사항을 기억합니다.

1.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2. 지혜는 다차원적이며, 여러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3. 이른 나이에 지혜를 얻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4. 한 분야에서는 지혜에 해당하는 것도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세상의 지혜는 아주 가치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가장 가치 있게 됩니다.

경전은 두 종류의 지혜를 설명하는데, 바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다 있습니다. 지혜의 가장 부정적인 면은, 이기적이거나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지성과 조작을 뒤섞은 부분적인 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는 또 다른 종류도

있는데, 그런 지혜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혜는 매우 긍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연구와 심사숙고, 관찰, 근면을 통해** 의식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지혜를 통해서 매우 가치 있는 도움을 얻습니다. 훌륭하고 고상한 사람들은 필멸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을 가져다주는 지혜를 기꺼이 하나님의 지혜 다음에 두는 것이며,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이 한 가운데 선을 그어 보십시오. 왼쪽에는 세상의 지혜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적어 보십시오. 두 종류의 지혜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문제들을 적어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일어날 일들이 나오는 교리와 성약 45편에서, 주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찌꺼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교리와 성약

45:57 참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와 관련하여 지금 당장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몹시 나눠 주고 싶어 하십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

2009년 4월 10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졸업식 연설에서 발췌함.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적용했습니까?

“선택에는 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면 매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신이 여러분 곁에 함께하시므로 모든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된 쪽을 선택하면 불행한 느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행복한 선택처럼 보일 테지만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비통해하며 후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무엘 제이, 오스트리아

해답을 찾아서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나쁜 행위들을 하는 무도회나
파티에 가는 건 괜찮나요?

자 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어떤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약물이나 알코올, 정숙하지 않은 옷차림, 음란한 가사의 음악과 춤이 있을 것 같은 곳에 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 없이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신앙이나 표준에 대한 대단한 모범인가?’ 또는 ‘그런 사람이 왜 여기에 왔지?’ 대부분은 그런 곳에 굳이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훨씬 더 훌륭한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일부러 유혹에 스스로 노출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

사탄은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는 도덕적 선택의지를 주셨다. 그분은 선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악마 역시 인간이 악을 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4쪽 참조)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에 관한 한, 악마는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만 영향력을 미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탄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동의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를 유혹으로 끌 수 없습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214쪽) 조셉 스미스는 또한 “악마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214쪽)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전에는 “네 생각과 네 마음의 의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교리와 성약 6:16)고 나온다. 따라서

사탄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실제로 알지 못한다. 다만 유혹하고 피어낼 뿐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따르기로 한다면, 사탄은 더 큰 지배력을 얻고 유혹은 더욱더 극심해진다. 마찬가지로, 악에 굴하지 않고 선을 택하면 여러분은 강해지고 축복을 받게 된다. ■

한 우리와 한 목자

양 떼를 위한 울타리는 구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는 것과 관련한 가르침을 전해 준다.



고대의 양 우리

우리는 무엇인가: 간단한 축사, 담장이 있는 울타리

목적: 특히 밤에 포식 동물이나 도둑으로부터 양 떼를 보호한다.

자재 및 건축: 보통 돌로 만들고 흔히 담 위에 가시 나무를 올려놓는다. 양 우리용 담장을 임시로 만드는 데 두터운 가시 덩굴이 흔히 사용되었다. 때로는 작은 바위나 가시나무로 앞을 막은 동굴이 양 우리로 사용되기도 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

- 양은 고기, 젖, 기름, 양모, 가죽, 뿔을 쓸 수 있어 아주 가치가 있었으며, 주된 동물 제물이었다.
- 이스라엘에는 여우, 하이에나, 표범, 자칼 등 양을 노리는 포식 동물이 있었다. 고대 시대에는 사자와 곰들도 그 지역에 서식했다.(사무엘상 17:33~37 참조)
- 목자들은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 떼를 이끌었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기와 투석기를 사용했다.
- 목자는 낮에는 먹이와 물가로 인도하고(시편 23:1~2 참조) 밤에는 우리로 다시 데려왔다. 목자는 우리로 데려올 때 양의 숫자를 세고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찾았다. 그런 다음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간에서 잠을 잤다.
-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다.(요한복음 10:11~15 참조) 이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또한 자신을 양 우리의 문에 비유하셨다.(요한복음 10:1~9 참조) 이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영적인 영양, 휴식, 평안, 구원과 승명을 얻기 때문이다.
-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양 떼에 비유했다.(사도행전 20:28 참조)

삽화: 데이비드 하먼; 하인리히 호프만 작, 예수님과 부유한 젊은 통치자의 세부 그림



다른 양

구주께서는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요한복음 10:16)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도된 니파인인과 레이맨인을 뜻한다.(제3니파이 15:14~24 참조)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를 방문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제3니파이 15:20; 16:1~3 참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양 우리란?

양 떼가 모이는 곳이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신앙과 성약을 통해,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함께 모임으로써 단합된 유대를 맺어야 한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단합의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을 구하고 또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모이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으로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공과반, 와드 및 지부를 설립하셨으며 우리에게 자주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임에서 ……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단합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우리 마음을 하나로 결합하여”, *리아호나*, 2008년 11월, 68쪽)

안전과 휴식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쉼을 얻[는다.]”(마태복음 11:29) 그분의 교회는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교리와 성약 115:6)가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필요한 일상적인 행동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저는 이런 것들을 압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 6쪽)

목자의 보호를 받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이다. 그분이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성약의 백성으로서 축복하고 인도하며 보호하신다. ■

“어떻게 하면 감독님께 저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고민을 감독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면 긴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어른과 대화하기 전에 긴장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감독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감독님은 최선을 다해 친절과 이해심을 보일 것입니다. 감독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구주께 나아가 평안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죄를 감독님께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감독님은 여러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감독님은 여러분이 더 나아지려 한다는 것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눈 대화를 기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짐을 홀로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회개하고, 죄책감이나 절망감, 또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감독님과 대화하는 동안 여러분에 대한 감독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독님은 와드 또는 지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감독님이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는 청남 청년들의 복지입니다.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감독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님께 이야기할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도록 감독님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감독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감독님께 간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분으로 감독실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독님은 회개의 단계를 통해 여러분을 인도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감독님을 찾아가는 것이 구주를 통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감독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했을 때, 감독님은 제가 구주를 찾으며 제가 받아 온 상처 중 큰 상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감독님의 부름은 여러분을 보살피는 것이며, 여러분이 감독님을 찾았간 그 이유 때문에 감독님이 여러분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디슨 디, 18세, 미국 유타

감독님은 기꺼이 도와주려 하시죠

전에는 접견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결국에는 감독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늘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을 믿으세요. 감독님은 목자이며 와드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자이메 알, 19세, 볼리비아 코차밤바



감독님은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10대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어른은 감독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결코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감독님에게 하는 이야기는 모두 기밀로 유지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가 매우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염려하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훨씬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니콜 에스, 18세, 미국 아이다호



감독님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은 주님의 참된 종입니다. 성신과 경전에서 영감을 구할 때, 여러분은 인도를 구하기 위해 감독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독님이 도움을 주기 위해 계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타니슬라프 알, 19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감독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말로 감독님과 상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교나 그 밖의 일반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회개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될 때에는, 감독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감독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독님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하찮게 보겠습니까?

애슐리 디, 17세, 미국 애리조나



알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감독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왜 편하지 않은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감독님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감독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알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애덤 에이치, 13세, 미국 캘리포니아

잘못을 했을지라도

감독님에게 무언가를 고백하는 것은 어렵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감독실을 나올 때에는 안도감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맨다 더블유, 16세, 미국 유타

감독님은 도움을 주기 위해 계신 거예요

감독님은 와드의 목자입니다. 감독님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며 감독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감독님에게 이야기할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감독님을 찾아간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며, 그 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새뮤얼 에이치, 14세, 미국 아이다호

이 주제와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의 "감독님께 무엇을, 왜 고백해야 하나까?"를 참조한다.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59쪽.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들, 특히 감독님에게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표준을 알고 계시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감독님과 함께 있을 기회를 구하십시오. 감독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감독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감독님께 질문하십시오. 교회의 도덕적 표준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감독님과 약속하십시오. 성인 지도자와 맺는 뜻깊은 관계는 도덕적인 순결과 합당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순결은 큰 힘을 발휘함”, 리아호나, 1991년 1월호, 42~43쪽.

다음 질문

“저는 후기 성도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습니다. 제가 믿는 것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5년 5월 1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3쪽의 주소 참조)

이메일 혹은 편지에는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이메일도 가능함.)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낸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영웅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말하기가 겁이 났다.

여러분의

살럿 메이 세퍼드
실화에 근거함

“자신을 갖고서 행동하라 …… 영웅처럼”
(어린이 노래책, 80쪽)

엘리는 불안해하며 엄지 손톱을 깨물었다.
피츠 선생님께서 책상 사이로 다니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묻고 계셨다.
“여러분의 영웅은 누구죠?” 피츠
선생님께서 제레미에게 물으셨다.
제레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희 아빠요!” 제레미는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피츠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다.

삽화: 볼레리온 페르라티



영웅은 누구인가요?

“사라의 영웅은?”

사라도 지체 없이 대답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요.”

엘리는 책상들 사이로 점점 다가오시는 피츠 선생님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영웅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모든 아이가 자신의 영웅이 누구인지를, 그것도 반 전체가 보는 가운데 말해야 했다.

앰버와 저스틴은 영웅으로 자기들의 엄마를 꼽았다. 월터는 할아버지가 자기에겐 영웅이라고 말했다. 왕이나 대통령을 말한 아이도 몇 명 있었다.

몇 사람만 지나면 엘리 차례였다. 엘리는 자신의 영웅을 생각해 내야 했다. 그것도 빨리.

엘리는 당황해서 신발을 쳐다보았다. 영웅을 생각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엘리는 누가 자신의 영웅인지 이미 알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값을 치르신 분이다. 이제껏 살았던 세상 모든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영웅이셨다! 엘리는 그저 그런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겁이 났던 것이다.

엘리는 반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광경을 상상하며 다시 엄지 손톱을 깨물었다. 내 말에 제레미가 비웃지는 않을까? 쉬는 시간에 새라와 앰버가 내 얘기로 속닥거리면 어떻게 하지?

물론 엘리는 자신의 영웅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잘 알았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다.

엘리 책상 앞에 멈춰 서신 피츠 선생님께서 빙긋 웃으셨다. “엘리의 영웅은 누구지?”

엘리는 주변 친구들과 피츠 선생님을 힐끗 둘러보았다. “에이브러햄 링컨이요.” 엘리가 속삭이듯 말했다.

피츠 선생님이 빙긋 웃으셨다. 선생님은 다음 학생에게로 가시면서 “좋아요!” 하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지나가시자마자 엘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무사히 잘 넘어간 것이다. 엘리가 했어야 할 일은 그저 자신의 영웅을 반 친구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는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몇 줄 뒤에 머리가 헝클어진 한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다. 삐쩍 마르고 부끄러움이 많아 늘 교실 뒤에 앉는 아이였다. 엘리는 그 아이 이름조차도 몰랐다. 엘리의 기억에 지금까지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다.

몇몇 아이들이 그 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그 아이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피츠 선생님을 올려다보면서 다시 말했다. “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츠 선생님은 환히 웃으시며 다음 줄로 가셨다. 엘리는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엘리는 자기 영웅을 모두에게 말하는 걸 두려워했지만, 그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 그 아이는 엘리네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 어려울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엘리는 그 소년을 보며 살며시 웃었다. 엘리는 자신의 영웅에 대해 말할 때 이제는 겁내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기도와 대성당

맥켈 조지
실화에 근거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아름다운 대성당의
꼭대기는 다니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까마득했다. 이곳에 모인 회중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다니는 왜 자기 가족이 금요일에
이 교회에 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저녁 예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예배인데요?” 다니가 여쭙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경전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대가족이 모이는 것과 같은
거란다.”라고 대답하셨다.

다니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다니와 가족은 영국을 여행하는
중이었다. 지난 일요일에는 요크라는
도시의 한 와드에 참석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모두 다니가 불렀던 것과 같은
노래와 경전을 알고 있었다. 다니는 그
와드가 고향에 있는 와드처럼 예수님의
참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대성당은 다니에게는 많이
낮선 곳이었다. 촛불이 빼곡히 놓인 작은
탁자가 다니의 시야에 들어왔다. 다니는
한 소년이 초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왜 초에 불을 켜는 거야?” 다니가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은 씩 웃어 보였다. “특별한 걸
위해 기도할 때는 초에 불을 붙여. 불꽃이
타오르는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경청자가 되며, 타인의 신실한
믿음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7쪽.

하지만 다니의 눈에 양초들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다니는 예의를 갖추고 싶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생긋 웃어 보였다.

다니와 가족이 자리에 앉은 후, 곧 저녁 예배가 시작되었다. 몇 줄 앞에 그 소년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다 다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기도를 할 때는 작은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었다. 모든 것이 다니가 평소에 보던 것과는 달랐다.

하지만 비록 익숙하진 않았지만, 음악은 충분히 아름다웠다. 곧이어 한 남자가 일어나서 경전을 읽었다. 그 남자는 다니의 감독님처럼 양복에 넥타이를 맨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 사람이 읽는 내용은 다니도 잘 아는 이야기였다. 그 남성은 예수님이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 주신 이야기를 읽었다.

다니가 속삭였다. “아빠,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좋아요.”

아빠는 흐뭇하게 웃으셨다. “나도 그렇단다.”

그런 다음 예복을 입은 그 남자가 기도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께 병들고 궁핍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다니가 하던 기도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남성은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다니는 가족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던 것이 떠올랐다.

다니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충만한 복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기도를 모두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았다.

사람들이 나가려고 일어섰을 때 아빠가 전화기를 확인하셨다. 문자 메시지를 읽는 아빠의 표정은 슬퍼 보였다. 아빠는 “몬슨 자매님이 돌아가셨단다.”라고 말씀하셨다.

“아, 안 돼!” 다니는 곧바로 마음속으로 몬슨 회장님에게 위안이 전해지길 바라며 기도를 드렸다.

그때 누군가 “너 괜찮은 거니?”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만난 그 소년이었다. 소년은 다니가 외친 소리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았다.

다니는 “몬슨 자매님이 돌아가셨어. 그분은 우리 선지자 몬슨 회장님의 부인이셔.” 하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소년은 상냥하게 말했다. “저런, 그분을 위해 초에 불을 붙여 줄게.”

다니는 살짝 웃어 보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다니는 그 소년이 몬슨 회장님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해 주는 건 아주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니는 자신이 마음속으로 했던 기도와 그 소년이 했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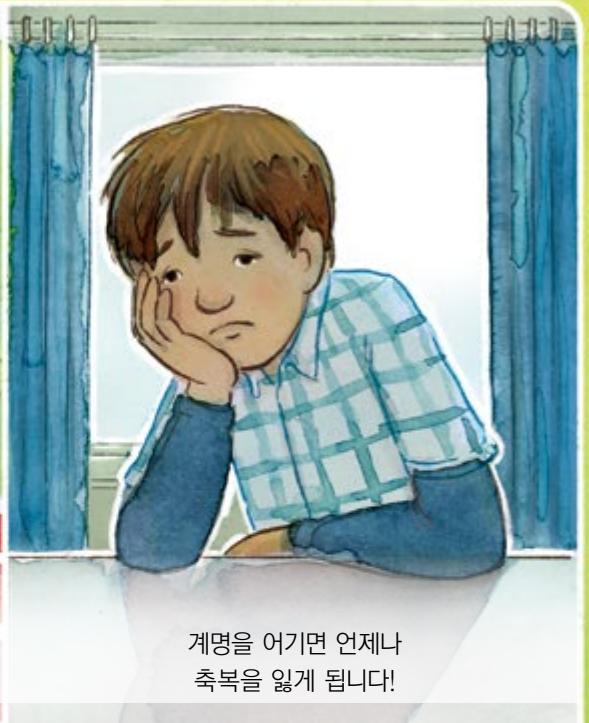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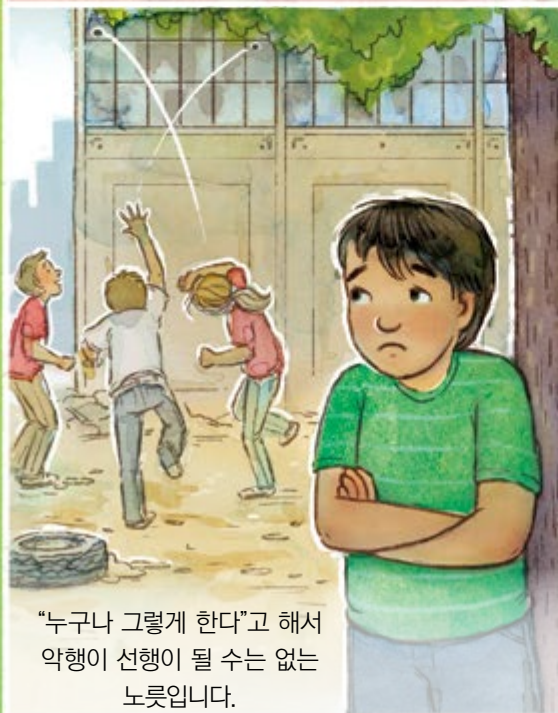
순종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계명을 지키면
언제나 축복이 옵니다.



계명을 어기면 언제나
축복을 잃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악행이 선행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24



삽화: 메튜 스미스

나병환자를 낫게 해 주신 예수님



에린 샌더슨

여러분이 몸이 아팠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나아지도록 무언가를 해 주지 않았나요?

신약전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푸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린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모두 고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환자에게 손을 내밀며 “깨끗함을 받으라”(마가복음 1:41)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남자는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가족과 대화하기

74쪽에 나오는 경전 이야기 그림을 활용하여 마가복음 1장 40~4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 다음 유다서 1장 22절을 읽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가족과 함께 계획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어린이 노래책, 36쪽)

성구: 마가복음 1:40~42

동영상: Biblevideos.org에서 “Jesus Heals a Lame Man on the Sabbath(안식일에 다리 저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과 “Jesus Heals a Man Born Blind(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시청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을지 역할극을 해 보세요. 여러분이 맡은 상황을 나름대로 꾸며 보세요!



새 가족이 이웃으로 이사를 왔다.

어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아이를 못살게 군다.

교회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 방문자가 초동회에 온다.

동생이 함께 놀 사람이 없다.

아기가 우는데 엄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의 워드 또는 지부 회원 중 몸이 아프셔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

더 알아보기: 복음서란?

신약전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라 불리는 특별한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를 알려 줍니다. 나병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세 가지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0~42 그리고 마태복음 8:2~4 및 누가복음 5:12~14.

경전 공부 도움말: 낱말 찾기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때로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까다로운 낱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지 못하는 낱말이 나올 때는 경전 안내서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휼”을 찾아보면 이 낱말의 뜻과, 이 낱말이 사용된 다른 성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다른 어떤 낱말을 찾았나요?

원곡: 감사를 드리는 나병환자, 존 스티븐 © PROVIDENCE LITHOGRAPHY; 오른쪽 삽화: 데이비드 말란; 가족 신 삽화: 마이크 로빈슨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40~42; 누가복음 4:38~40

두꺼운 종이나 판지에 이 장 전체를 붙이세요. 그런 다음 그림을 잘라 나무 막대나 종이봉투에 붙이세요. 그것을 사용하여 신약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연기해 보세요. 이 그림은 liahona.lds.org 에서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군중



예수 그리스도



나병환자



베드로의 장모



클라우드 디
지빅 장로
칠십인

올바른 길



“너희를 지은 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교리와 성약 43:23)

몇 해 전에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 유타 주에 있는 아치스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아치 가운데 하나인 텔리케이트 아치가 그곳에 있는데, 저희 가족은 그 아치를 보기 위해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큰 열정으로 길을 떠났지만 얼마 못 가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그곳에 도착하려는 욕심에 혼자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가야 할 길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아는 듯이 보이는 한 남성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이 길은 우리 가족이 올 수 없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야에 들어온 텔리케이트 아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아치까지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왔던 길로는 그 아치에 도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실망한 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얼른 다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올바른 길을 알려 주는 표지판을 따라서, 힘들었지만 조심하면서 텔리케이트 아치에 다녀왔다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커다란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여러분의 길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복음 원리와 계명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올바른 길에 있게 될 것입니다. ■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39~41쪽에서

구주 나 사랑하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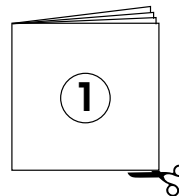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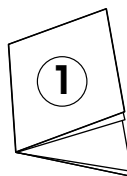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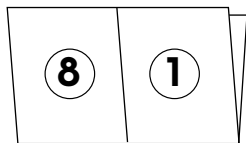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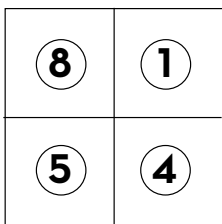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실화에 근거

레니는 교회에서 경건하게
있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하지만 힘이 들어서
다리를 꼬지락거리고
싶었어요.



성찬 전달이 끝나자 레니는 예수님이
나오는 책을 펼쳤어요. 책에는 예수님이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그림이 있었어요.
레니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졌어요.

이야기는 79쪽에서 계속됩니다.



1-자른다



예수님에 관한 내 책

1

2-접는다

8

구주 나 사랑하시네
테미 쟈슨 크리머, 테레나 벨

5

이런이 10권 극수
금원익 2 김원익 10권

4-자른다

4

윤이 곽상 불기
금원익 2 김원익 10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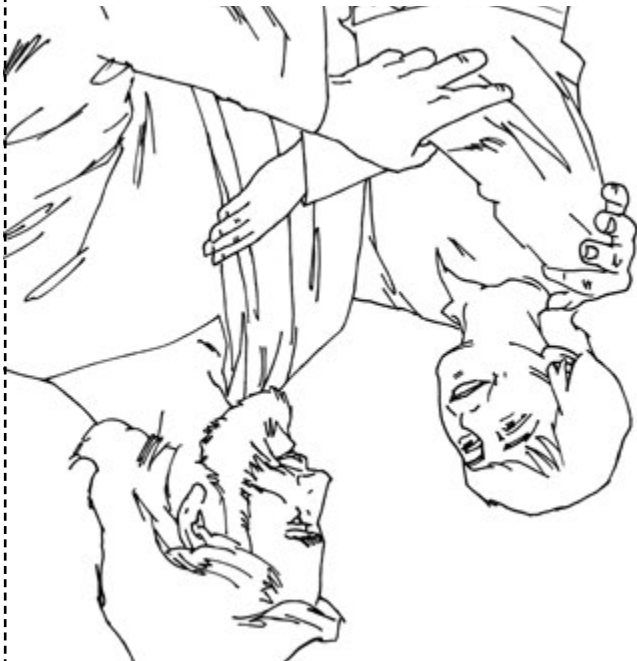
3-접는다



② 옛날 옛적 아름다운 곳에서
예수는 어린이들을



⑦ 내 마음 바치리
구주 나 사랑하시네



③ 마음을 뽕뽕
축복하고 거치시며



⑨ 아리야 계 예수 그 품에 수에 거치 시리

접는다

접는다



성찬식이 끝난 후에 레니는 엄마께
“예수님이 나오시는 책을 보면 왜
경건하게 있기가 더 쉬워지는
걸까요?” 하고 여쭙었어요.

엄마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나게 해 주기
때문일 거야.”라고 대답하셨어요.

레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예수님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실까요?” 하고
여쭙었어요.

엄마는 레니를 꼭
안아 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아시지.”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에 산다.

이번 달은 제일회장단이 회원들에게 가정의 밤을 하도록 권고한 지 100년째가 되는 달이다. 다음은 가정의 밤을 소개한 제일회장단의 서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 서한은 1915년 4월에 발표되어 1915년 6월 Improvement Era(733~734쪽)에 인쇄되었다. 대문자, 구두점은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함.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후기

성도들에게 주님이 교리와 성약 68편에서 주신 계명을 더욱 열심히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 시온이나 또는 시온의 조직된 어느 스테이크이든지 그 안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여덟 살일 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아울러 시온의 자녀는 주님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후기 성도에게 되풀이하신 계명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12].

이런 계시들은 후기 성도들에게 널리 해당하며, 이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이 계명들을

가르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회 전체에서 “가정의 밤”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시간에 아들딸을 곁에 불러 모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야기 및 놀이를 포함시켜도 됩니다. 가정에서 대부분 마련하는 가벼운 다과를 내놓아도 좋습니다.

격식이나 딱딱한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피하되 이 활동에는 가족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모임은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경고와 권고 및 조언을 주는 기회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가정의 밤은 아들과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가정의 축복에 감사를 보이는 기회가 됨으로써, 가정의 축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그들의 삶이 길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우리는 …… 젊은이들에게 그 저녁에는 가정에 남아 교육적이고 유익하며 즐거운 가정의 밤이 되도록 힘써 주기를 권고합니다.

성도들이 이 권고를 따른다면 크나큰 축복이 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자라날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을 에워싼 악한 영향력과 유혹을 이길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조셉 에프 스미스
안톤 에이치 린드
찰스 더블유 펜로즈
제일회장단 ■

가정의 밤

100주년



부모는 가정의 필요 사항을 더 온전히 알고, 이와 동시에 자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더욱 철저히 익힐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밤은 기도, 찬송, 노래, 악기 연주, 경전 읽기, 가족 문제 토의, 복음 원리나 인생에서 겪는 도덕 문제, 더 나아가 부모와 가정,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대해 자녀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는 적절한 낭송, 노래,

통찰



어떻게 하면 가정의 밤을 우선시킬 수 있을까?

“가정을 강화하고 평화를 쌓으려 노력할 때, …… 매주 하는 가정의 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밤을 바쁜 일상에 추가되는 활동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월요일 밤에는 가족이 함께 집에 있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업무나 운동 경기, 과외 활동, 숙제, 그 외 어떤 것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정의 밤 형식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 하나하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게 하십시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신앙으로 나아가

니파이의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네 가지 통찰을 통해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44쪽

청소년



50쪽

조셉 덕분에

조셉 스미스가 있었기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여섯 가지 면을 생각해 본다.

어린이

구주 나 사랑하시네

교회에서 경건히 지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신만의 소책자를 만든다.



7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